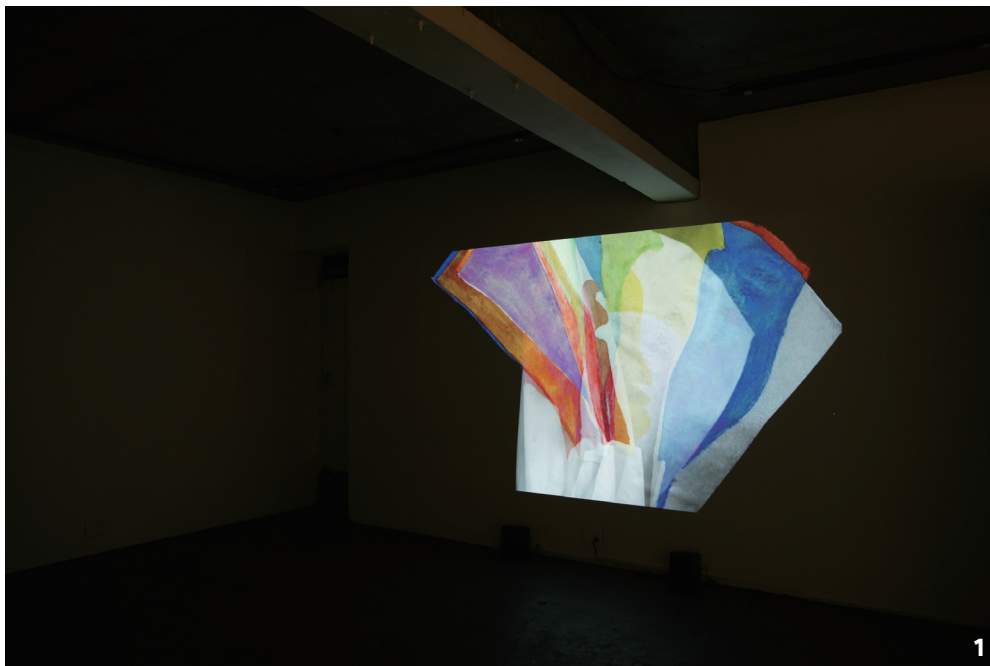


12.1
2018-10
117

2018 3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

이달의 표지 작가

옥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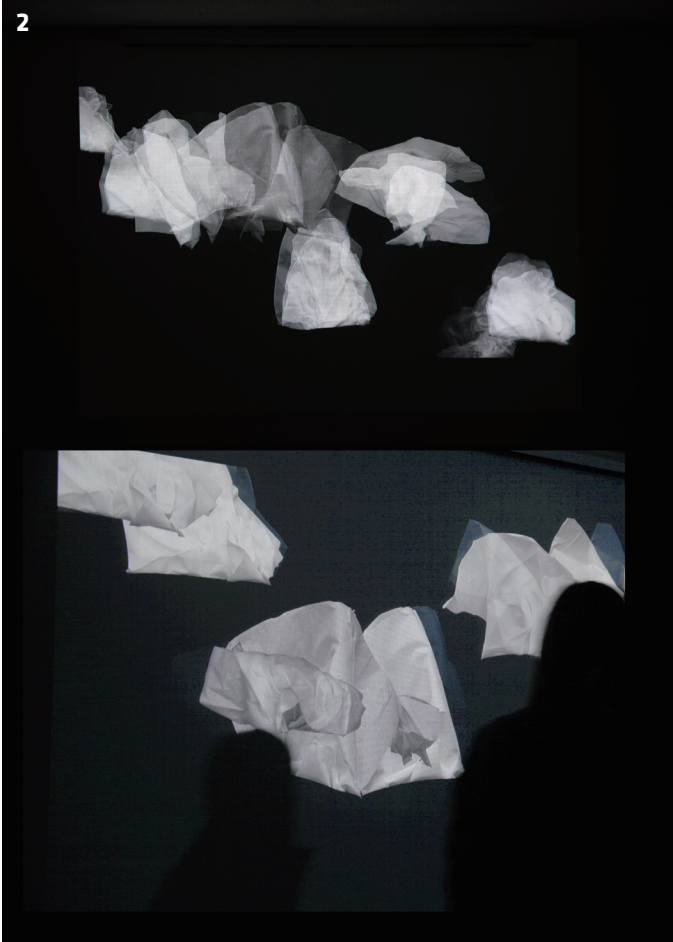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전문사에 재학 중이다. 특정 사물이나 경험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재료로 작업한다. 2016년 인디애니페스트, 2015년 중국 쓰촨 국제 TV 페스티벌 등에서 작품을 상영했다. 2017년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되어 대안예술공간 이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 1 〈Pop-up Research_설치전경〉
애니메이션 | 1920×1080 HD | 4분 19초
- 2 〈Pop-up Research_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비디오 아카이브 스크린샷 |
1920×1080 HD | 2분 37초
- 3 〈Overlapping Pieces〉 혼합재료 |
16개 패널 각 21×29.6×60cm | 2017

표지 작품

〈방황하는 오브제_조명〉
옥세영, 김민아 | 디지털 프린팅 |
148×99cm | 2014



2



표지 작품 〈방향하는 오브제_조명〉은 롤러, 가위, 목 베개, 채, 삼선 슬라이퍼, 주전자, 줄자, 헛바퀴, 전선, 멀티탭, 조명, 파이프 등으로 이루어진 사물 사진 시리즈 중 하나다. 다양한 사물들로부터 가상의 움직임을 상정한 후 그 잔상을 기록하고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동적인 모습을 수집했다. 사물이 고정되어 박제된 현실에서, 살아 있는 실체로 다시 보이길 바라는 사진 아카이브다.

이렇게 나는 관찰한 사물이나 상황을 토대로 그것이 움직이는 행위로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탐구하거나, 사물의 속성을 사람의 삶에 비유해 이야기를 만들어왔다. 애니메이션 기법을 기반으로 드로잉,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특정 사물이나 경험의 이면에서 발생할 법한 가상의 상황을 재료로 일상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자라나는 생명력을 모색한다.

최근에는 영상을 영사하는 방식 자체를 다양화하여 하나의 매개가 되는 사건을 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각기 다른 상황을 시공간적인 경험으로 확장했다. 또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위와 물질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물이 만나 생기는 우연적인 형상이 관객의 행위에 반응해 발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작업을 시도했다. 우리의 일상, 우연성, 이야기, 기억, 행위 등에서 사물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이 낯설게 보인다는 것의 의미와 상영과 전시의 간극에서 미디어를 보여주는 방법론의 확장을 꾀한다. 삶 속에 보태지는 상상력들이 관객과 관계 맺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CONTENTS

2018.3
vol.133

한 장의
사진



운동 초록빛으로 물든 이곳은 다름 아닌 '달리는 북한산' 열차 안입니다. 북한산 풍경과 오소리, 찌르레기, 애기뿔족 등의 동식물 그림으로 둘러싸인 열차에 앉아 있으면 산속의 청량감마저 느껴집니다. 북한산 생태계의 깃대종 '산개나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북한산 원도봉계곡과 용어천계곡 등지에서 서식하는 고라니도 만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태교육의 현장입니다. 봄을 맞아 '달리는 북한산'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_ 46페이지 '화제'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한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만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옥세영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여덟 번째

테마 토크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 08 사진으로 보는 '남산의 낮술' 남산예술센터에 바랍니다
- 12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소개 무대 위에 펼쳐지는 숙고와 성찰의 시간
- 16 고연옥 작가·이연주 연출 인터뷰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라
- 20 남산예술센터 서치라이트(Searchwright) 미완의 연극 재료를 찾아서

사람과 사람

- 22 문화인 마스트미디어·마스트엔터테인먼트 김용관 대표
 - 28 작가의 방 웹진 <비유> 고정직 편집장
 - 32 진실 혹은 대담 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토론회
 - 38 예술가의 밥그릇 컨셉추얼 패션 디자이너 권자영
-
- 40 서울 찰나 정호승의 시 <봄길> 중에서

이슈 & 토픽

- 42 쟁점 1 <채식주의자> 오역 논란의 마무리
- 44 쟁점 2 다시 불거진 #문단_내_성폭력
- 46 화제 위이산설선 '달리는 북한산' 운행

공간, 공감

- 50 공간 1 우리소리도서관
- 52 공간 2 사진 책방 '이라선'
- 54 공감 1 뮤지컬 <레드북>과 연극 <미저리>
- 56 공감 2 전시 <두 번째 풍경>과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
- 58 공감 3 책 <죽음과 죽어감>과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 60 공감 4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과 <더 포스트>

-
-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결혼의 문화사
- 66 서울 단상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의 오금동 지하 연습실
- 68 서정민의 썬(說) 사라진 라이브클럽들, 그리고 '경록절'
- 70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 72 서울 건축 읽기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연상호 감독의 <염력>

-
- 76 3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여덟 번째

나 때가 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개의 종이 등장합니다. 두 개는 노래 속에, 하나는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은 노래 속의 종입니다. 광화문 부근에 10년 넘게 살지만 아직도 산책 중에 새로운 것들이 종종 시야에 잡힙니다. 얼마 전엔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노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술하게 걸었지만 바로 옆 세종로공원에 이런 비석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연보를 찾아보니 2009년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 〈광화문연가〉 노래비가 세워지기 14년 전인 1995년부터 세종로 한구석엔 〈서울의 찬가〉 노래비가 세워져 있던 겁니다.

〈서울의 찬가〉는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패티김이 불렀습니다. 대중가요사를 풍미한 이름들입니다. 1969년 음반에 처음 실렸고 이후 각종 행사장에서 술하게 불렸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는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야구단 응원가로도 살짝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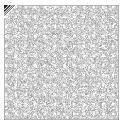
노래가 발표될 당시 두 사람은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둘은 이별하는데 '낭만부부'답게 헤어지기 직전 〈이별〉이라는 노래를 크게 히트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 예측합니다. 만남과 이별도 그렇지만 마지막 해후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길옥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던 패티김은

전 남편의 영결식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로 시작하는 〈이별〉이 상식적(?)인 선곡일 듯싶는데 뜻밖에도 패티김은 〈서울의 찬가〉를 불러서 문상객들을 살짝 놀라게 했습니다. 원곡은 밝은 행진곡풍인데 그날은 진혼곡으로 불렀던 겁니다. 확장성이 넓은 노래인 게 분명합니다.

종이 올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노랫말에 그려진 서울은 종이 올리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전환?) 시청 앞의 꽃들은 여전히 활짝 피고 새들(주로 비둘기들)도 광장을 누비지만 종소리를 들어본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고작 들을 수 있는 건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정도입니다. 한 해에 한번 몰아서(33번) 듣는 종소리를 통해 시민들은 '또 한 해가 저무는구나' 하고 체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선 종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수업의 시작과 끝에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입학해서 가장 먼저 배운 노래도 〈학교종이 땡땡땡〉



입니다. 그 가사도 옮겨보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제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선생님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매일매일 모입니다. 산에서? 지하철에서? 당구장에서?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을 모이게 하는 소리는 학교종이 아니라 채팅방 새소리(까톡 까톡)입니다. 우정의 매개자인 이 새는 기특하게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온갖 엽서를 배달하는데 며칠 전엔 특이한 물건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눈여겨보니 피사체는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히트상품입니다. 이태리타월! 정작 이태리 사람은 모르는(알아도 사용할 것 같지 않은) 한국인 전용 ‘때 미는 수건’입니다. 목욕탕 갈 때 필수품이었던 추억의 타월 한 장으로 수선을 떠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에 써진 다섯 글자 때문입니다.

“다 때가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엔 가슴 한쪽에 여운이 남습니다. 때 미는 수

건 위에 이런 말을 띄울 정도의 예지력을 갖춘 그 분은 누구일까요. 문득 이 사진을 확대하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광화문네거리 ‘글판’에다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우리 몸에도 때(垢)가 있고 우리 삶에도 때(時)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때는 찾아오고 어떤 이에게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만남의 때가 있고 이별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묵은 때는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때는 숨기고 남의 때만 탓하는 세태를 이태리타월이 ‘땡땡땡’ 꾸짖는 듯합니다. 여기서 올리는 종의 이름은 경종(警鐘)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경종은 지금도 울리는데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허겁지겁 앞만 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을 울릴 차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조종(弔鐘)입니다. 여기서 종은 죽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죽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인간에게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기간은 불투명해도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보다 욕망에 목을 맵니다. 다 때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성찰과 되짚기로 점철되다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민간극단들과의 공동 제작 시스템을 수용해
동시대 창작연극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남산예술센터가
여느 공공극장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극장'과 '동시대성 작품'을 표방하며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꾸밈없이 한국사회의 이슈와 현상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남산예술센터가 2018년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3월 '테마 토크'에서는 '성찰과 되짚기'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검열과 블랙리스트, 예술계 성폭력,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이슈를 거침없이 다뤘은 남산예술센터의 면면을
돌아보고, 이번 시즌에는 과연 어떤 작품으로 연극계와
관객들에게 화두를 던질지 미리 들여다보았다.



그림 최지예

사진으로 보는 '남산의 낮술'

남산예술센터에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남산예술센터에서는 2017년 시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송년파티 '남산의 낮술'이 열렸다.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진과 출연자들을 비롯해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프로 신경질러 상', '시작이 반 상' 등 기발한 명칭의 상을 수여하는 '남산 어워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2017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을 함께한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응원과 조언 한마디를 전했다.



- 1, 2, 3 '남산의 낮술' 현장. 이날만큼은 극장의 금기를 깨고 무대 옆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 4 이효진 무대감독의 수상을 축하하는 배우들.
- 5, 6 장연의 배우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고수희 배우에게 돌아간 '베스트 드레싱 상'을 대리 수상했다.



지금처럼 식사 시간이 확실한 극장이길 바랍니다.
- 사운드 디자인어 정해수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극장이길 - 음향감독 김동욱

젊은 창작자에게 멋진 기회를 주는 극장이길
- 연출가 변영진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젊은 공간이길 바랍니다.
- 배우 권정훈



창작자들의 속 깊은 친구로 계속 남길 - 연출가 박해성

작품 초기 인권교육이 좋았습다.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안 공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성폭력, 폭행 문제에 대응하며 극장 측의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지 및 교육하고, 그것이 계약서에도 반영되면 좋겠습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연극계 전반에 공유되고 확립되면 좋겠습다. - 배우 우범진

지금 해야 할 말을 하는 극장이길 - 안대원 이대은

저희 좀 또 불러주세요. - 배우 이리



발라, 락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 리뷰단 강현우

비가시화된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무대 위에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관객과 거리를 위한 고민을 창작자들과 함께 나누는 극장이 되길 바랍니다.
- 음향 디자인어 박수

누군가 서로서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함께하는 극장이길 - 배우 최원정

시대의 주표가 될 수 있는 창작자본일이 되길 바랍니다. - 배우 한명규





1



2



3

- 1, 2 <에어콘 없는 방>의 한영구 배우, <파란나라>의 김수정 연출가.
- 3, 7 '남산의 낮술'은 시즌 프로그램을 함께한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 4 '남산의 낮술' 사회를 맡은 도재형 극장운영팀장과 정태환 무대감독.
- 5 <2017 이반검열>의 우범진 배우가 '시작이 반 상' 수상의 기쁨을 국민체조로 표현했다.
- 6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과 남산예술센터 우연 극장장이 '남산 어워드'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과 꽃다발을 전했다.



4

마음껏, 양껏 놀 수 있는 연극인들이
놀이돈가 되어주세요. - 배우 고수희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극장이길
- 안네원 박준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극장이길
- 배우 서현민

느려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극장이길
바랍니다. - 삼일로 주니어 펄크로가 이승대

자생력이 필요한 점은 예술가들에게
얼려 있는 극장이길 바랍니다. - 배우 우정원

점은 창작자가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길 - 연출가 기경

점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극장이길
시민들과 함께 작업하는 극장이길
- 안네원 홍지성

이미 죽어 있는 나뭇들로 뿔뿔히 뿔뿔히
만들어내는 극장이길 - 배우 김선기

주체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주체적으로
작업을 기획하는 극장단체, 거부의 기준이
명확해서 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
단체이길 기획의 기준이 명확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단체이길 - 퍼포머 조백산

주체가 가능해지길...^^

- 영상감독 윤영철
- ↳ 주체자장 - 연출가 김수정
- ↳ 주체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배우 허재성

지금처럼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동료들
되어주길 - 배우 강두진

먼저의 극장이길 - 시인배우 양만수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소개

무대 위에 펼쳐지는 숙고와 성찰의 시간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성찰과 되짚기.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 시대의 파국과 변화를 겪은 개인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에 뒤따르는 숭한 질문들을 던진다. 올해 어떤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는지 미리 만나보자.



성찰과 되짚기로 이어가는 남산예술센터의 행보

극장의 생애도 사람과 같이 세월에 따라 숭한 우여곡절을 감당해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남산예술센터가 지나온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했다. 극장 밖의 드라마도, 극장 안의 드라마도. 극장 밖에서는 전 국민이 위기와 절정의 파고를 타고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극장 안에서는 세월호와 예술 검열, 소수자와 인권, 예술계 성폭력 등 연극인들이 내세우는 주제의 강도와 목소리의 데시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2018년, 올해 남산예술센터의 작품들은 성찰과 되짚기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변화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룩한 세계가, 혹은 정신이 사실은 부실공사로 허술하게 증축된 것은 아닌지, 지

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그간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유보된 과거 때문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잠식해 있는 불안과 공포가 향후 우리 삶을 뒤흔드는 여진이 되지 않을지...

다급한 세상의 변화에 복무하느라 미루어두었던 숙고와 성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되짚기'의 작업들이 올해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극장 밖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우리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여러 행정적 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시대의 연극인들은 인간의 내면과 과거의 행적들을 재탐색하면서 작가들만의 방식과 언어로 우리 안의 또 다른 규명 작업들을 극장 안에서 진행할 것이다.



- 1 1월 17일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기자간담회 모습.
- 2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 포스터.
- 3 작년에 진행된 낭독공연 〈처의 감각〉
현장 스케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다

〈처의 감각〉

올해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은 극장 스스로 지난 제작과정의 미숙함과 오류를 되짚어보는 시도와 함께 시작된다. 〈처의 감각〉은 고연옥 작가의 벽산희곡상 수상작으로, 2016년 〈곰의 아내〉(고선웅 각색, 연출)로 무대화되고, 〈처의 감각〉(이음 출판사)이라는 원제로 희곡집이 발간됐다. 당시 공연 프로그램북에서는 이 작품을 ‘처의 감각 희곡 읽기’와 ‘곰의 아내 무대 읽기’로 분할해 희곡은 희곡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소개했다. 당연히 한 몸이 되어야 할 희곡과 공연이 한 몸이 되지 못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초연의 순간까지 연출가와 극작가가 작품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고, 결국 창작극 초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연출의 각색본으로 이루어졌다.

〈곰의 아내〉 공연 이후, 극작가와 연출가 사이의 완성된 증폭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채감은 극장을 고민하게 했고, 결국 2017년 봄 〈서치라이트〉를 통해 원작의 낭독공연을 가진 뒤 올해 원작과 작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원제 〈처의 감각〉(고연옥 작, 김정 연출)으로 공연을 새롭게 제작한다. 특히 지난해 화제작 〈손님들〉로 각종 연극상을 휩쓴 김정 연출과 고연옥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남산예술센터는

이 공연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민낯의 경험과 문제들을 관객과 평단, 연극계와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처의 감각〉은 오는 4월 28일 독일 하이델베르크 극장에서 열리는 희곡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독일어 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해외 진출과 달리 희곡 텍스트의 해외 진출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우여곡절 많았던 텍스트의 독일행도 많은 이들이 주목해주길 바란다.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것

〈에어콘 없는 방〉,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두 번째 시간〉

2018년 레퍼토리 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에어콘 없는 방〉의 초연 당시, 이성열 연출은 90살이 넘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6·25 등 6번의 정변과 전쟁을 겪으셨으니, 우리 근현대사는 위인도 영웅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맨 정신으로 살아내기에 얼마나 가혹했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에어콘 없는 방〉(고영범 작, 이성열 연출)과 〈두 번째 시간〉(이보람 작, 김수희 연출)은 바로 이 가혹한 시간대를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이다. 〈에어콘 없는 방〉은 1930년대, 1945년 해방 전후, 1973년 유신시대를 넘나들며 박헌영, 엘리스 현, 피터 현 등 해방 전후

사의 인물들이 출몰한다. <두 번째 시간>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1970년대의 의문사를 둘러싼 이야기로, 이 의문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들이 등장한다.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최치언 작·연출)는 흔적했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만날 때마다 딜레마에 빠져 옥신각신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개인의 용기’라는 주제를 전하는 블랙 코미디이다.

이쯤에서, 최치언 작가의 흥미로운 작품 제목을 빌려 질문해본다. 그런데 어쩌나, 동시대 작가들이 어쩌다,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되었을까? 어쩌나, 그것은 현재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작가들은 시선을 과거로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 몸으로는 21세기를 살며, 왼손에는 태극기를 든 채 정신은 20세기를 살고 계신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지구 저 끝 섬나라의 날씨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왜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이리도 많은 것인지,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여정을 시작한다.

남산 무대 위에 인형극? 병신춤? 놀라지 마시라

<손 없는 색시>,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한 여인이 있다. 주어진 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늘 가슴이 아프다. 매일매일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러나 손은 이 고통스러워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달아난다. 이 아름답고 시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주인공 배우는 인형이다. ‘예술무대 산’과 공동 제작하는 <손 없는 색시>(정민선 작, 조현산 연출)는 남산예술센터 제작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인형극이다. 조현산 연출의 설명에 의하면, 인형의 표정은 단 하나뿐이라 인형극을 본다는 것은 마치 은유가 장착된 시를 읽는 것과 같다. 즉 관객들은 인형의 단 하나의 표정 속에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숭한 감정과 상념을 스스로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은 <손 없는 색시>의 숨어 있는 표정을 상상하는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기,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기, 그리고 깊게 공감하기.

윤한솔 연출은 단 하나의 표정을 지닌 <손 없는 색시>와는 정반대로, ‘천의 얼굴’을 가진 고 공옥진 선생을 남산 무대 위로 소환한다.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그린피그



- 1 <에어콘 없는 방> 공연 모습.
- 2 장강명의 소설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공동 창작, 윤한솔 연출)은 2014년 ‘해화동 일번지’에서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의 하나로 선보인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 버전>의 연작 시도다. 옛 판소리를 배우며 현대와의 접점을 찾자 했던 전작에 이어 올해는 고 공옥진 선생의 병신춤을 탐구한다. 그런데 그 탐구 방식이 당황스럽다. 병신춤을 최근의 아이돌 춤처럼, 키네틱 센서를 활용해 과연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권여선에 이어 장강명까지, 소설의 무대화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권여선의 소설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2016)에 이어 올해는

남산예술센터 2018년 라인업 소개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협력극단
3월 9일~11일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한일연극교류협회의회 공동주최
3월 13일~23일	〈서치라이트(Searchwright)〉		*기획·공모 선정
4월 5일~15일	〈처의 감각〉	작 고연옥, 연출 김정	프로젝트 내친김에
4월 26일~5월 7일	〈손 없는 색시〉	작 경민선, 연출 조현산	예술무대 산
5월 17일~6월 3일	〈에어콘 없는 방〉	작 고영범, 연출 이성열	극단 백수광부
9월 4일~16일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세, 연출 강량원	극단 동
10월 4일~14일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공옥진의 병신춤 편〉	그린피그 공동 창작, 연출 윤한솔	그린피그
10월 25일~11월 4일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작·연출 최치언	창작집단 상상두목
11월 15일~25일	〈두 번째 시간〉	작 이보람, 연출 김수희	극단 미인
12월 5일~7일	국제 공동 제작 프리-프로덕션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가제)	이경성(한국) 사토코 이치하라(일본) 왕 칭 안 버디(홍콩)	크리에이티브 VaQi(한국) 극단Q(일본) Artocrite(홍콩)

장강명의 소설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정진세 각색, 강량원 연출)의 무대화가 이루어진다. 소설의 줄거리대로라면,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뒤 15년을 복역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올 결심을 하는 한 남자가 있다. 이 작품은 그의 꿈인지, 상상인지, 소설인지 모를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연출들은 소설을 읽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머릿속에 그린 상상을 훌쩍 뛰어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연극의 형태를 추론하기엔 난감한 소재를 품고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SF적인 소재, ‘우주알’이라는 독특한 상장을 대체 어찌할 것인가? 연극팬이라면 신체의 행동과 이미지 해석을 통해 독특한 작업 세계를 드러내는 강량원 연출의 막강한 상상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극장을 방문할 것이다.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무대가 궁금하다면 극장 나들이를 해보길 권한다.

한국, 홍콩, 일본 국제 공동 제작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가제)

남산예술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장기 계획으로

한국, 홍콩, 일본 3개국의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16년 촛불 세대와 태극기부대 세대로 상징되는 세대 갈등이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도 만연할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즉 단기간에 국가를 설립하고 순식간에 근대화과정을 밟아야 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에 극단적인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첫 출발은 남산예술센터에서 한국의 이경성 연출을 비롯한 아시아 3개국의 80년대생 연출들에게 ‘아시아 세대전쟁’이라는 주제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워크숍을 거치면서 이 무거운 주제는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가제)이라는 발랄한 제목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예상과는 달리 젊은 세대들의 신선한 목소리가 담긴 실험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12월에 남산에서 프리프로덕션 쇼케이스의 형태로 먼저 선보이고, 완성작은 2019년 각국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글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사진 서울문화재단



고연옥 작가 · 이연주 연출 인터뷰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라

한파가 불어 닥친 2월의 어느 날, 연극계의 봄바람을 기대하며 고연옥 작가, 이연주 연출을 만났다.

이들은 남산예술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고연옥 작가는 지난해 김정 연출과 함께 작업한 〈손님들〉로 각종 연극상을 휩쓴, 국내 대표 극작가다.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의 대표인 이연주 연출은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화하지 않고 신중한 시선으로 그려내 호평받고 있다. 지난해 '제8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부문 수상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동안 연극계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시켜 무대를 잃은 뒤 공공극장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공공극장을 표방하는 '블랙텐트'가 세워져 연극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기존 국공립극장 중에서는 2009년 재개관한 서울문화재단의 남산예술센터가 공공극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엄혹한 기운이 남아 있던 2016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태풍을 몰고 온 주인공인 박근혜 연출의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시즌 프로그램 라인업에 포함시켰다. "외롭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논쟁적일 수 있는..., 이런 작품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극장도 있어야 한다"는 남산예술센터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극장의 사명감인 셈이다.

남산예술센터의 공공성

지난 2009년 재개관 공연과 지난 2016년 〈곰의 아내〉 등으로 남산예술센터와 작업했던 고연옥 작가는 "남산예술센터는 다른 국공립 제작극장과 차별성이 있다"고 봤다. "명동예술극장(국립극단)은 중견 창작자와 해외 고전을 위주로 한 '웰메이드 작품'을 만들어 관객층을 넓히려는 목표가 있다면, 남산예술센터는 창작자

중심이다. 기성이든 신인이든 창작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극계에서 남산예술센터와의 작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고 작가는 "세금이 들어가니,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느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거다. 작업자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도 책임감이 따라온다. 남산예술센터는 그런 작업자를 지원한다."

이연주 연출은 남산예술센터의 동시대적 감각에 주목했다. 그는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를 통해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던 〈이반검열〉을 발전된 형태로 지난해 남산예술센터에서 선보였다. 이 연출은 "남산예술센터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동시대적 감각에 따라 선정된 작품들이 보인다"면서 "초반에는 창작자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개념 기반의 공연, 텍스트 기반의 공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현장 중심, 트렌디한 부분이 강조되는 듯하다"고 봤다.

공공극장의 역할

그렇다면 남산예술센터를 비롯한 공공극장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 작가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공연과



“국공립극장의 창작품은 문화예술계의 자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다. 국공립극장이 알맞은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고연옥 작가

개념 등을 시도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적 영역의 극장과 민간 영역의 극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공립극장이 좋은 창작자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건 해당 단체나 개인 예술가들에게만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연극계, 나아가 문화예술계의 자산이 되는 일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반증하듯, 예술가들을 편견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공립극장의 창작품은 문화예술계의 자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다. 국공립극장이 알맞은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고 작가는 동시에 국공립극장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짚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국공립단체가 민간단체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예술가들은 국공립극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명예롭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럴수록 국공립극장이 예술가를 존중하고 마음껏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권위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 연출은 국공립극장이 공공성과 민주주의와 연결된 만큼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묻고 답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연극단체, 극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공립극장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역할, 기능, 비

중에 대해 예술가들 스스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문화예술이 필요한지 등의 고민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예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국공립극장과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현장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국공립극장의 성과 위주 풍토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요즘 성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한 해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몇 년간 지켜봐주어야 한다. 최근 극장들의 공연 라인업을 보면, 서로 좋은 기획 프로그램을 교대하는 느낌이 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 벌어지는 현상이다. 각자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공립극장의 관객 개발 역시 화두다. 예컨대, 물리적인 형태의 극장이 없는 영국 웨일스국립극장은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학교, 기차역 등지를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례는 지난해 남산예술센터가 기획한 〈서치라이트〉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이 연출은 “우리나라의 국공립극장이 행정적인 고민을 더욱 해야 한다”면서 “관객의 수준을 낮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경험 속에서 공연들을 접하고, 이를 통해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경계가 넓어지고 시각 자체가 다양해진다”면서 “대중적인”이라는 말의 뜻



“모든 연극단체, 극장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공립극장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역할, 기능, 비중에 대해
예술가들 스스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연주 연출

이 불분명함에도, 대중적이라는 시각으로 관객들을 미리 재단해 만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의 민간극장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국공립 극장 역시 장애인 관람 환경에 무신경하다는 문제의식도 나왔다. 이 연출은 장애인 극단인 ‘애인’과 꾸준히 작업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장애인 배우가 움직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연극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말 ‘애인’이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공연한 페르난도 아라발의 〈전쟁터 산책〉은 완성도 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연출은 “장애인

배우를 배우가 아닌,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인간 승리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공립극장에서 장애인 연극을 만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감각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전쟁터 산책〉을 직접 관람한 고 작가는 “많이 공연된 작품임에도 이번 공연은 삶의 부조리를 담는 데 있어 최적의 캐스팅이었다”면서 “장애인 극단의 잘 만든 작품이 더 많이 공연됐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과 민간의 위계, 그리고 남산예술센터를 위한 제언

국공립극장과 민간의 위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미 공연한 〈이반검열〉을 남산예술센터에 다시 올리면서 생각이 많았다는 이 연출은 “대학로 공연의 단계가 낮은 것이 아니고,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다고 그 단계가 더 높아지거나 대단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단계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민간과 공공극장의 작업물이 하나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통의 과정을 수면 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반검열〉 재공연 시 민간 차원에서 소극장에서 공연했을 때와 국공립극장에서 공연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많았다. 그보다는 2016년 공연과 2017년 공연의 명분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컸는데도 말이다.” 고 작가는 “그간 프로덕션 형태의 극장들이 늘 젊은 창작자들에게 가혹했다”는 말로 이 연출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 연극계는 신인 연출가와 작가들을 기다려주기보다 어떻게 소극장에서 중극장으로 옮길 것인가, 다음 작품에서 망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이 연출은 “남산예술센터 만큼은 너무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시도를 해도 된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작가는 “연극에서는 대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산예술센터 상시 투고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작가들의 진입은 연출가에 비해 쉽지 않다. 극작가를 위한 환경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 사진 최성열



남산예술센터 서치라이트(Searchwright)

미완의 연극 재료를 찾아서

남산예술센터는 연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창작연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있다. 〈서치라이트〉는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 단계이거나 제작과정에 있는 작품을 낭독공연, 워크숍, 쇼케이스 등의 형식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미완의 콘텐츠들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며 그 발전 가능성을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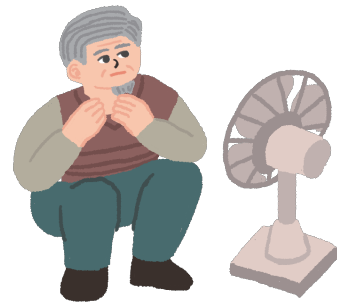
아직·미정·미확정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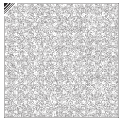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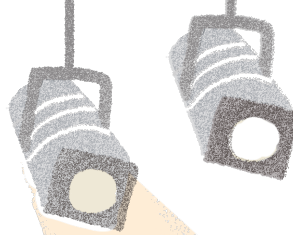
지금까지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는 창작자들의 머릿속이나 메모장, 회의 테이블과 같은 내밀한 곳에서 시작돼 정식 공연으로 선보이기 전까지는 관객과 만나기 어려웠다. 완성된 작품으로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존 공연과 달리, 〈서치라이트〉는 미완성의 공연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무대 언어로 구현할지를 관객과 이야기하며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남산예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개인이나 예술단체가 기획 중인 공연이나 창작 전 단계의 제작과정을 공유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서치라이트〉는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희곡, 창작자의 메모장 속에 잠들어 있는 미완의 텍스트, 극단의 회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디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낱장의 장면 등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아직·미정·미확정의 무대’이다. 미정의 무대 위에서 낭독공연, 짧은 워크숍, 쇼케이스, 주제 리서치를 위한 전문가 Q&A, 공개 토론,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피칭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과정 중 콘텐츠’가 소개된다. 이 과정을 통해 창작자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작품을 개발하는 파트너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극장은 한정된 소재와 시각에서 벗어나 동시대 창작연극의 예술적인 진로에 대해 보다 넓게 고민할 수 있다. 관객은 작품의 제

1, 2 지난해 〈서치라이트〉 모습.
토크쇼 〈25시-극장전〉을
선보이고 있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이경성.
낭독공연 〈소에츠-한반도의
하얀 태양〉 현장 스케치.





2018 <서치라이트> 세부 내용

일정	발표 형식	작품명	참여 아티스트/단체
3월 13일 오후 8시	낭독	〈7번국도〉	작 배해물, 연출 구자혜
3월 14일 오후 8시	쇼케이스	〈이러지도저러지도어테로〉	작 김병건, 연출 박근형
3월 15일 오후 8시	리서치	〈본 공연은 자막이 제공됩니다.〉	WHATSUB : 김지나, 허영균, 목소
3월 16일 오후 8시	낭독	〈인간설명서〉	작 김혜음, 연출 하수민 플레이씨어터 즉각반응
3월 20일 오후 8시	쇼케이스	〈밤이 되었습니다〉	연출 김지은 프로젝트 XXY
3월 21일 오후 8시	쇼케이스	〈하얗게 질리기 전에〉 (Before it turns Whiteout)	연출·무대 디자인 송주호 디오라마 비방 씨어터
3월 22일 오후 8시	기획/낭독	〈강철로 된 무지개〉	작 이중세, 연출 이철희 코너스톤 벽산문화재단 협력
3월 23일 오후 8시	기획/낭독	〈너의 후일은〉	작 이양구, 연출 강랑원 인천시립극단 협력

- 남산예술센터 누리집(www.nsac.or.kr)에서 사전 예약, 전석 무료(1인 2매)
- 문의: 남산예술센터 콜센터 02-758-2150

작과정에 참여해 작품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획자는 새로운 작품과 창작자를 만나 주도적으로 작품을 발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 2017년 3월, 창작자들과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 장면을 시연하고 공개 토론을 펼쳤던 창작집단 극과이것의 〈마지막 황군〉은 관객과의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미완성의 장면을 함께 만들었다. 완성된 희곡은 지난 12월, 서울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북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미인도에서 공연되었다. 극장과 공연예술의 관계, 관람 형식에 대한 리서치를 발표한 〈Turn Leap: 극장을 측정하는 작가들〉은 이후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추가로 참여해 2017년 12월, 문래예술공장에서 전시와 공연으로 선보였다. 〈처의 감각〉과 〈두 번째 시간〉은 〈서치라이트〉에서 낭독공연으로 선보인 후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아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으로 기획·발굴되었다.

완성을 향해 한 걸음

올해 〈서치라이트〉에 응모한 76편의 작품 중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무대와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 24편이 토론 심사에 올랐고, 6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프로그램의 첫 문을 여는 배해물 작가의 〈7번국도〉는 남산예술센터 상시 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발굴된 작품이기도 하다. 극작가이자 연출가 구자혜와 배우들이 선보일 입체적인 낭독공연을 기대해도 좋다. ‘극단 골목길’의 배우 김병건이 쓴 첫 희곡 〈이러지도저러지도어테로〉와 ‘프로젝트 XXY’의 〈밤이 되었습니다〉는 사회적 젠더 규범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쇼케이스 형식으로 선보인다. ‘WHATSUB : 김지나, 허영균, 목소’의 〈본 공연은 자막이 제공됩니다.〉는 공연에서 쓰였던 자막의 다양한 사례를 리서치해 토크 테이블 형식으로 발표한다. 신진작가 김혜음이 쓴 〈인간설명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인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

한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수민 연출과 ‘플레이씨어터 즉각반응’이 어떻게 해석할지 기대를 모은다. 마지막으로 송주호 연출과 ‘디오라마 비방 씨어터’의 쇼케이스 〈하얗게 질리기 전에〉(Before it turns Whiteout)는 사실적으로 구현된 디오라마 무대 세트와 타블로 비방으로 연출된 극적인 장면을 통해 동시대 예술과 미학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6편의 공모작 외에 기관 및 지역과의 협력으로 기획 프로그램 2편을 소개한다. 제7회 벽산희곡상 수상작인 이중세 작가의 〈강철로 된 무지개〉, 인천시립극단에서 인천을 소재로 한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인 이양구 작가의 〈너의 후일은〉이 낭독공연으로 오른다.

〈서치라이트〉에서 ‘라이트’(wright)는 작가를 뜻한다. 이 프로그램이 동시대 창작연극의 외연을 넓히고 창작자들이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완의 희곡, 미정의 공연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있도록 많은 관객이 작품의 제작과정에 참여해 거침없는 피드백을 주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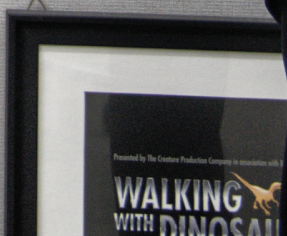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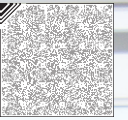
글 조유림 남산예술센터 · 사진 서울문화재단

마스트미디어 · 마스트엔터테인먼트
김용관 대표

가짜가 넘치는 세상, 진짜로 승부하다

새해, 화제의 뮤지컬이 있다.
무대영상, 연출기법, 음악 및
조명 등으로 뮤지컬계에 새로운
자극을 준 러시아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가 그것. 제작사는
‘마스트엔터테인먼트’이다.
2007년 태양의 서커스로 화제를
몰고 온 그 제작사다.
항상 새로운 양식을
최고의 퀄리티로 선보여온
마스트미디어의 김용관 대표를
만났다.





요즘 비비안 리부터 소피 마르소, 키이라 나이틀리 등이 주연한 영화 〈안나 카레니나〉를 다시 보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효과로 보이는데 이 러시아 뮤지컬을 전 세계 라이선스 초연으로 가져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러시아 뮤지컬과의 인연은 2014년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의 폐막작으로 〈몬테크리스토〉를 가져온 데서 시작됐어요. 모스크바 오페레타 시어터의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 해 평단에서 최고의 뮤지컬로 인정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죠. 러시아 뮤지컬은 역사는 짧지만 무용, 음악, 오페라, 연극 등 기초예술 장르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다 왜 러시아 원작의 작품을 만들지 않고 알렉산더 뒤마의 작품을 제작했는지를 물었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을 예로 들었는데 워낙 대작이라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 만들어진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를 보라. 극장에서 촬영했으니 그대로 무대로 옮기면 뮤지컬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겨울에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를 만들었으니 보려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지난해 봄, 직원들과 함께 가서 다시 보니 해볼 만하다 싶어서 9개월 만에 우리나라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두 번 봤는데 무대가 압도적이었어요. 음악도 좋았고요. 특히 뮤지컬을 처음 본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프로듀서로서 〈안나 카레니나〉가 기존의 뮤지컬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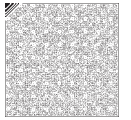
비슷비슷한 뮤지컬 중 하나인 복제품(replica)이 아니라 진정한(authentic) 뮤지컬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연습도 남산창작센터에서 8t짜리 대형 타워를 놓고 실전처럼 했고요. 국내 뮤지컬 역사상 최대의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294개의 무빙라이트를 투입했고 무대 세트와 소품 전부를 러시아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지요. 의상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2.5m에 이르는 여러 대의 LED 스크린과 3D 영화를 방불게 하는 대형 스크린 등 첨단 무대 기술은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높은 퀄리티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1



1, 2 김용관 대표가 국내에 선보인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포스터.



- 3 출연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태양의 서커스 깃발.
- 4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러시아는 한 번 제작하면 2주 단위로 공연을 올리고 2주 쉬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공연되기 때문에 장비에 큰 투자를 해요. 우리에게서 그런 만한 공연 시장이 없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했죠. ‘패티’가 등장할 때 극장의 붉은 커튼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 섬세하게 구현했어요. 뮤지컬 평론하는 이유리 교수가 “〈안나 카레니나〉 연출은 천재”라고 극찬할 정도였죠. 제작 메커니즘부터 배우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통해 기존 뮤지컬과는 다른 러시아 뮤지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제품이 아니라 진품을 추구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출연진의 인터뷰를 보니 연습 당시 고생이 심했던 만큼 공연 후 만족도가 유독 높은 것 같은데 이는 진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 결과이지 싶네요. 요즘 워낙 복제품이 넘치다 보니 진품을 지향하는 출연자와 스태프의 에너지가 관객에게 감동으로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요. 그간의 여정을 되짚어본다면요?

2000년 클래식 전문 잡지를 만들고 클래식 연주자들의 독주회나



콘서트를 여는 클래식 전문 기획사로 출발했어요. 클래식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5년 노라 존스 공연을 기획했죠. 작은 기획사에서 그래미상을 8개나 수상하고 세계 최고 음반 판매 기록을 가진 재즈 가수를 초청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캐나다 대사관 후원으로 몬트리올 아트마켓인 시나르에 갔는데 태양의 서커스가 화제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죠. 주한 캐나다 그리니우스 대사가 태양의 서커스를 그동안 한국에 들여오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아봐달라며 추천서를 써줘서 태양의 서커스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수석 부사장을 비롯, 마케팅, 해외 투자 담당, 변호사 등 5명이 둘러앉아 있는데 마치 면접 자리나 다름없더라고요. 저는 “2000년에 시작해 5,000달러의 귀국 독주회를 연간 100여 회 진행했고, 5만 달러의 클래식 음악회를 연간 10여 회 기획했으며, 50만 달러의 노라 존스 공연을 성공했고 음악 잡지 <그라모폰>과 <스트라드>, <인터내셔널 피아노>도 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동안 태양의 서커스에 무수히 많은 한국 업체들이 찾아왔는데 자본이 많으면 공연을 모르고, 공연을 알면 자본이 열악했는데 저는 여러모로 적당해서 파트너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았지요.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을 믿게 하는 저력이 있는 듯해요. 그 저력은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 아닐까요? 보통 직접 찾아가고 인터뷰를 요청하고 구체화하는 것에는 취약한데 김 대표님은 다른 듯해요. 2009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친선경기 유치 때도 그랬고요.

2005년 태양의 서커스 면접 때 만났던 수석 부사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가 추천을 해주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친선경기 유치 경쟁에 참여했는데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가족과 발리에서 휴가 중이었는데, 12개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자본, 규모,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스포츠도 레퍼토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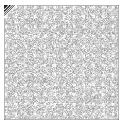
티드 구장 이름이 ‘시어터 오브 드림’(Theatre of Dream)이었습니 다. 축구나 공연이나 입장권을 파는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생각 했고요. 축구경기에 국내 최초로 하프타임 쇼까지 곁들여서 흥행 기록을 세웠지요.

일을 같이했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 대표님을 추천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2007년 태양의 서커스 <퀴담>이 대성공을 거둔 탓도 있지만, 태양의 서커스 본사에서 감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 태양의 서커스 공연장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해 냈지요. 잠실운동장의 공터에 태양의 서커스 빅탑 시어터가 서 있는데 썰렁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한다면, 뭔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500평이나 되는 빅탑 시어터 펜스에 <퀴담>, <알레그리아> 등 그동안 태양의 서커스에서 만든 13개 작품의 이미지를 대형 배너로 붙였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꽤 들었지만 보기는 좋았지요. 공연 당시 방문한 몬트리올 본사 사람들이 멋진 아이디어라며 감탄하더군요.

자신들도 하지 못한 마케팅을 파트너사에서 훌륭하게 해냈으니 호감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해하지만, 살아남기 어려운 레드오션의 공연 업계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블루오션을 향해하고 있는 듯해요. 2018년 계획은요?

클래식 시장은 저변이 취약해 클래식 공연만으로 살아남기는 힘들어요. 그동안 상업적인 공연을 유치해왔는데 이것이 클래식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클래식을 고집하기 위한 ‘캐시 카우’(cash cow)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클래식 공연기획이 연간 4~6회 정도로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15회 수준으로 확대하려 해요. 라인업은 이미 발표했고요. 세계적으로 클래식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음악 인재가 배출되는 곳도 드물거든요. 특히 지난해 ‘영앤윙섬’과의 합병으로 서울 대표 예술축제 중 하나인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5월에 열 예정이에요. 실내악의 대중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스포츠라이트를 받는 사람보다는 받게 만드는 사람, 눈앞에 드러나기보다 가려진 사람, 무대 위에 오르기보다 무대 아래, 무대 옆,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빛나기보다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일하셨잖아요. 20년간 문화예술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김용관 대표 프로필

- 1995 음연 설립
- 2000 마스트미디어 설립
- 2005 노라 존스 콘서트
- 2006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설립
- 2007 태양의 서커스 <퀴담> 전국 공연
- 200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리아 투어
- 2012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전국 공연
- 2014 그레뱅코리아 설립
- 2018 러시아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전국 공연

언젠가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연계에는 풍부하고도 열정적인 인적 인프라가 넘치지만 ‘쇼 닥터’라고 불리는 우수한 기획자, 창작자가 없습니다. 모두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을 공연장에 자주 데리고 가야 합니다. 태양의 서커스의 우수한 작품들은 모두 최고 경영자인 기 랄리베르테(Guy Laliberte)가 어린 시절 보고 느낀 것들을 재창조한 작품들이에요. 또 공연 예술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공연예술 단체를 확실하게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해요. 태양의 서커스는 퀘벡 발견 450년을 기념하는 축제 공모에서 퀘벡시가 거리예술을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1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검증 안 된 젊은이들한테 100만 달러를 준다는 건 지금도 불가능하죠. 전문 공연단체조차도 100만 달러를 후원받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기회 균등의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제도도 필요합니다. 잘하면 눈치 안 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죠.

김용관 대표는 공연 사업을 일컬어 “눈덩이를 굴리는 사업”이라며 “처음 조그만 눈덩이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한 번 땀은 인연과 경험의 눈을 굴리고 굴리면 자산이 되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뢰 없이는 인연과 경험의 눈덩이가 커지지 않는다. 인터뷰하는 동안 매사에 진품을 지향하는 그의 태도에서 내 눈덩이도 커져갔다. 신뢰가 개인의 자본에서 예술 생태계의 자본으로, 나아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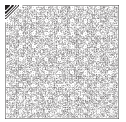
글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 사진 오계옥



웹진 <비유> 고영직 편집장

정신의 운동장을 넓히다

주머니 속의 문학잡지.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초 창간한 웹진 <비유>를 가리키는 말이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꺼내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비유>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문학잡지는 우리 문학계에서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문학을 소비하는 계층과 소비하는 방식이 급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데 이 '새로운 잡지'를 이끌고 있는 고영직 편집장은 사실 1992년에 평론작업을 시작한 '오래된' 문학인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문학창작촌에서 고영직 편집장을 만나 오래된 평론가가 꿈꾸는 새로운 문학잡지의 비전을 들었다.



웹진 <비유>(http://view.sfac.or.kr)는 스마트폰의 작은 창에 최적화해 꾸몄지만, 다루는 문학의 영역만큼은 주머니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 <비유>는 무엇보다 ‘전문작가가 쓰는 시와 소설’이라는 전통적인 문학의 개념에 도전한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쓴 폭넓은 글을 문학의 틀에 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학의 개념마저 확장해나간다.

웹진의 전체 구성을 ‘!(하다)’, ‘...(쓰다)’, ‘?(문다)’라는 3개의 메뉴로 나눈 것도 이런 ‘도전과 확장’의 결과다. ‘!(하다)’는 여러 문학적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문학이란 완성된 작품의 형태만이 아니라 작품이 완성되기 이전의 과정 속에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한다. 창간호부터 연재된 ‘월 10만 원으로 작업공간 구하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재 꼬명팀의 ‘쓰레받기’, 낭독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줍줍팀의 ‘줍줍줍’ 등 6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 편집장은 “곧 10개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돼 한 달에 2~3건씩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쓰다)’는 2017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작가 100명의 작품과 기성작가의 신작을 구분 없이 함께 공개한다. 이에 따라 작가 소개란에 ‘어떤 신춘문예에 등단한 누구’라는 식의 내용은 없다. 다만 기성·청년작가 구분 없이 ‘글쓴이가 글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문다)’는 특정 낱말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엮어가는 메뉴다. 현재 ‘캡처와 ‘목격자’, 그리고 ‘잡지’라는 세 낱말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목격자’는 2017년을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섰던 이들이 그 현장을 전하는 코너다. 지난해 7월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 중 한 명인 이은자 씨가 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의 날’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언제부터 <비유>를 구상했나요?

2016년 11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매체 창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20~30대 청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공간 등을 포함하는 새 매체를 창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현재와 같은 ‘웹진 형식을 통한 문학의 확장’은 어떻게 구체화됐나요?



‘!(하다)’, ‘...(쓰다)’, ‘?(문다)’ 등 3개의 메뉴로 구성된 웹진 <비유>.

새 형식은 지난해 2월쯤 편집진이 구성되면서 본격 논의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김지은(아동문학평론), 김중일(시인), 황현진(소설가), 김나영(문학평론), 장은정(문학평론) 작가가 편집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문학창작촌의 한혜인 총괄매니저와 오영호 대리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비유>의 아이디어는 젊은 편집진이 많이 냈는데, 최종적인 틀은 지난해 9~10월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편집진이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편집회의를 하면서 잡지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다)’, ‘...(쓰다)’, ‘?(문다)’라는 구성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문학 생태계가 ‘독자들을 포함하는 문학 생태계’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비유> 편집진은 한국 문학계에서 독자들은 소외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문학인을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과도 맞물려서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로 ‘...(쓰다)’ 같은 경우, 기성작가와 청년작가의 작품을 구분 없이 소개함으로써 작가 등단제도의 완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워낙 새로운 형식인데, 이에 대한 문학계 전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웹진에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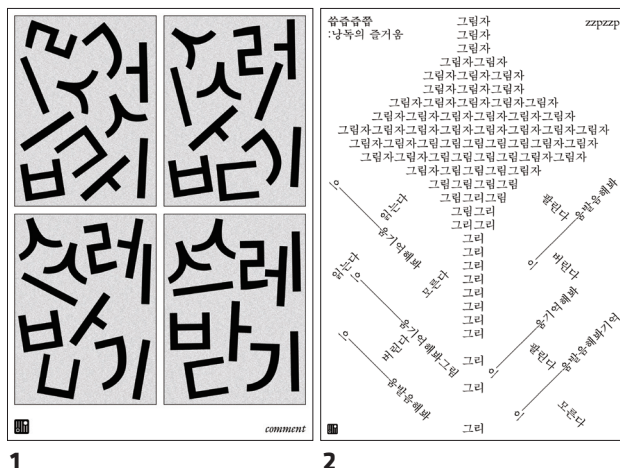
숙한 젊은 작가들은 ‘…(쓰다)’ 코너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습니다. 미래의 ‘적들’에 대한 동향 파악일까요?(웃음) 이 코너에서는 기성작가와 청년작가의 작품을 적절히 배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기성작가들은 ‘!(하다)’와 ‘?(묻다)’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습니다. 신생 매체라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서울문화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문학 웹진을 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니 <비유>의 독자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한국문학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국문학의 큰 전환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전통적 문예지가 폐간되었고, 문학잡지로서의 기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독자들이 작가가 돼 출간한 독립잡지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독자 중에는 세계문학 등이 자신의 생활과 동떨어진 얘기를 담은 탓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런 현상은 글쓰는 일이 등단작가들의 전유물이던 시기가 확실히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유>가 한국의 문학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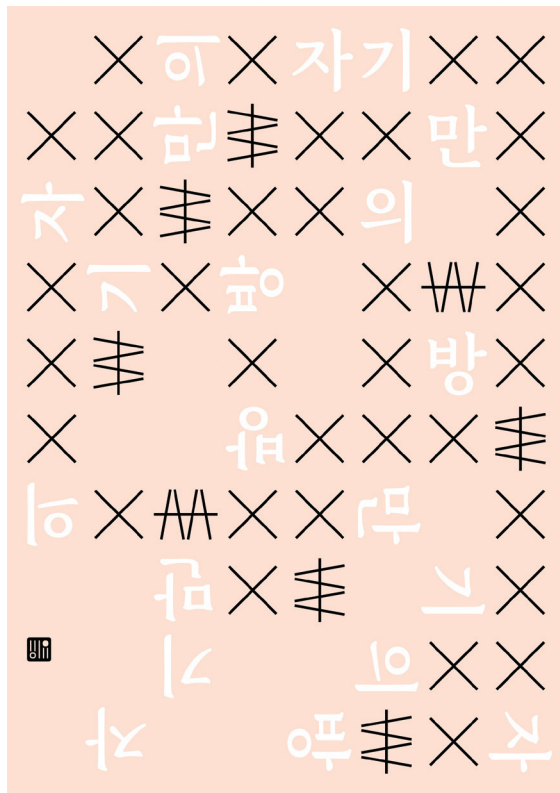
고 편집장님의 문학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편집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비유〉라는 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문학계에 계셨는데, 처음 활동할 때와 현재를 비교할 때 문학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지요?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역할은 ‘정신의 운동장’을 넓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문학 활동을 할 때는 문학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학의 역할은 그런 거룩하고 거창한 일보다 내 안의, 우리 안의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작가가 “문학을 신뢰할 수 없



- 1, 2 여러 문학적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다』에서
진행 중인 교명팀의 '쓰레받기'와 줍줍팀의 '줍줍줍:
낭독의 즐거움' 포스터.
- 3 연호문학창작촌은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실이다.
각 집필실은 국내 작가의 순수문학 창작을 위해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해외 문학 교류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로도
활용되고 있다.
- 4 창간호부터 연재된 월 10만 원으로 작업공간 구하기
프로젝트, '자기만의 방'.
- 5 '...『쓰다』 1호 포스터.





No.	— 1 —								
<	•	•	•	>					
김유진	김유진	신철규	신철규	신철규					
이보연	이보연	이상정	이상정	이상정					
연진영	연진영	김가람	김가람	김가람					
백설희	백설희	신지영	신지영	신지영					
이록	이록	신용목	신용목	신용목					
송미경	송미경	김영락	김영락	김영락					
김현	김현	박지음	박지음	박지음					
		한보라	한보라	한보라					
		한이연	한이연	한이연					
		서수진	서수진	서수진					
		김이설	김이설	김이설					
		최진영	최진영	최진영					
		박민정	박민정	박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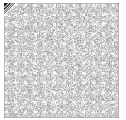
31

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토론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초를 공개했다. '문화비전2030' 기초에서 설정한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¹⁾ 이날 발표한 기초에 따라 문화비전을 구체화하고 3대 가치를 정책과제로 녹여내기 위해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은 문체부가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3대 가치에 따라 분과를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자율성 분과²⁾에서 준비한 첫 번째 현장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열린 토론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사회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 3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제강의실

새 문화정책, 함께 만든다

문체부는 ‘문화비전2030’ 기조 발표 시 협치를 통해 문화비전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기조만 공개하고 이후 문화비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2017년 6월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가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2030’ 수립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광, 콘텐츠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19명으로 출범해 현재 27명¹⁾이 활동 중이다. 문체부와 준비단은 2018년부터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율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의제인 개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증진이라는 큰 주제를 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 일상에 맞닿아 있는 화두와 이슈들로 치환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사회를 맡은 이동민 위원은 준비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자율성 분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크게 두 가지이며 다른 모든 정책의 기본전제”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준비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비전2030’은 최종적으로 민간에서 완성해 제안한다. 토론 시작부터 정책에의 반영 여부를 의심하는 발언이 나오자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숙제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는 자리를 계속 가지다 보면 해소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독려했다.

내 삶을 바꾸는 문화적 권리, 여가사회로의 전환

개인의 잃어버린 문화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이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혁신은 무엇일까?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은 토론을 위해 위의 세 가지 화두를 제시하고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제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문화적 권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얘기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간 부족의 문제는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여가비인데, 어디까지 지원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하는 정보의 부족에 대해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quefaire.paris.fr>)를 예로 설명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여가시설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실질적인 활용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에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여가 경력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년 12월 7일).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 자율성 분과: 김권일(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기획팀장), 박종관(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유지근(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위원),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이동민(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전고필(대안예술시장 총감독),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3) www.mcst.go.kr/culturevision2030/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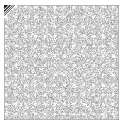
- 1 '문화비전2030' 기초에서 설정한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다.
- 2 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토론회 웹 포스터.

생애주기 모델이 필요하며, 동반자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와 클럽 활동, 가족 단위 여가 활동 측면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 삶을 바꾸는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는 제약 조건을 시작으로 문화적 권리를 체감하고 인정해주는 부분에서부터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며 발제를 마쳤다.

초반부터 토론 주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이동민 위원은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한정적인데 여가사회는 폭넓은 개념과 범위를 적용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환경이 풍요롭게 실천되고 구현되는 사회를 명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여가사회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가는 일반적으로 노동하고 남은 시간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의 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문화적인가? 오토, 캠핑, 여행 등 소비로서의 여가는 충분한데 그것이 문화정책에서 개입해야 할 부분인가?”라는 의문제기와 여가사회를 어떻게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동민 위원은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정책적 환경이 필요한가라는 논의도 가능하다. 이제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유진 문화기획자는 “개인의 자율성에서 내 삶을 바꾸는 문화적 권리와 여가사회로의 연결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에 주어가 없다. 국민의 모델이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다. 미투(#Me Too) 운동이나 웹툰 <며느라기>는 여가

와 관계없지만 개인의 자율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어가 없으면 추상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한다. 지금 여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규직에 취직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청년들은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차이가 분명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동민 위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 사회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향유되고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이 겹쳐져 일상이 만들어진 다. 단순히 시간은 많지만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도 있다. 여가사회는 일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 앞으로 문화적 권리를 지향하는 모습의 하나로 본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여가사회에 대한 논쟁 이후 김혜준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는 “자율성의 키워드는 ‘자존감 높은 시민’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문화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많이 버는 것보다 적정 수준의 소득이 지속되는 것을 행복의 일순위로 꼽았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동료, 친구 한 명이 나타나도 행복이 증가한다. 문화정책에서는 행복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동료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형성시켜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문화적인 접촉을 늘리는 방법을 근린지구 단위와 직장 단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김정명 명지대 체육학부 교수는 여가는 삶의 소중한 부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화되어왔고 국가적으로는 소모품이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가의 본질적 의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부”라고 설명했다. 주체성과 여가의 관계, 몸학(somatic)을 연구해온 그는 세월호 유가족을 예로 들었다. “정부에서 애를 썼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치유의 대상화가 되는 데 지쳐 있다. 나는 가족들을 만나 문화 활동을 함께하며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대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문화의 역할”이라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책이 현장과 닿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대로 두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피동체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계의 사례를 김유진 문화기획자가 부연했다.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10년 동안 일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3년간 일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생활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해왔다. 지표만 놓고 얘기하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접속하지 못한다. 잘하던 사업도 중앙 주도적으로 바뀌거나 다른 담당자가 오면 시민들에게 불신이 생긴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전환기적 문제를 고민하며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괴로워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삶에 대한 요구는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근현대사회의 트라우마이다. 전환기적인 이슈를 트라우마의 문제로 생각하고 중요한 문화정책의 축으로 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정책 방

향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 정책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현장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술창작자에게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활예술은 돈을 지원해줄 테니 행사를 하라는 식이 아니라 직장, 종교, 동네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프라를 확대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예술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정명 교수는 “지금 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지 않으면 의심한다. 참가 인원 수만 챙기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개입으로 현장이 훼손되고 사업 수혜의 대상화가 반복되어온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잃어버린 문화적인 삶, 개인의 삶을 회복하는 가이드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유진 문화기획자는 “문화정책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와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한다. 어색함을 견딜 시간과 거리가 필요한데 판을 펼쳐놓고 당장 친해지라고 하는 방식이 문제다.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책에서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자원을 쓰면 좋겠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준 전 대표는 “정책에서는 보편과 특수이 잘 직조되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동네에서 모여 교육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변에서 강사와 예술가를 찾는다. 이런 수요에 정책은 동네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공간, 사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거시적으로는 문화정책이 지역사회 공통의 기본 계획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유진 문화기획자는 “시민들은 알아서 잘 한다. 관공서가 개입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협치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행정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고만 얘기한다. 자발성은 행정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이수철 과장은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이후 간섭이 시작되고 수량화되면서 망가졌다. 사업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중앙에서는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고 갈등 없이 무마해나가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기초가 되는 행정과 관련법부터 분석해서 바로잡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초이고 문화정책이 발휘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제안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풍물만 30년을 해왔다는 한 참가자는 “민간예술인으로서 풍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강습을 해주고 수준에 맞는 공연도 올리며 재미있게 살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자격이 안 되거나 시기를 놓치면 활동 기회가

줄어들고 설 자리가 없어졌다. 좋아 보인다고 어설픈 정책으로 삼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삶을 파괴한다. 좋은 것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시설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여가시설은 부족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전에 대학로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풍물패들은 거리에서 마음껏 놀았다. 지금은 반정부 활동으로 탄압을 받아 자유롭고 평화롭게 즐기던 마당문화가 없어졌다”면서 시설만 거창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서령 이오공감 공동대표는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강사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시작했다. 자발성을 기초로 모인 그룹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도 높고 생명력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위에서 판을 뒤집어버린다”면서 정책을 만들 때 너무 구체적인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오히려 잘하고 있는 활동까지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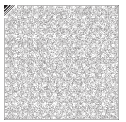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자

2부에서는 예술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구자호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에서는 예술교육자를 예술가로 취급하지 않고 예술교육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력으로만 본다. 예술교육자를 예술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김유진 문화기획자는 “막상 현장으로 들어가보면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예술강사를 예술가로 인정하라고 하면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역량이 있고 각자의 입장도 달라서 그보다 상위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예술교육정책과 연관이 많은 학부모와 예술강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전체 70%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졸업 후 취업은 30%밖에 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청년실업자가 된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화를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할 일이 없고 볼 프로그램이 없어서 게임을 한다. 아이들이 무엇을

김유진
문화기획자





하면서 놀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은 더 무브 예술감독은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와야 하는데 하도 많은 교육을 무료로 받다 보니 아이들이 멍해져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가 키우는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사교육을 못 받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절실한 친구들도 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보면 학원보다 좋은 선생님들인데도 부모 입장에서 학교에서 공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15명이 오면 중간에 반은 학원에 가버린다”며 무료 교육의 폐해와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연극 분야 예술강사를 10년째 하고 있다는 참가자는 “정부에서 문화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제도와 방법이 나온다.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릴 때부터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창의력 발현의 기초이다. 창의력 발현의 수단이 문화예술교육이다. 각자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창의력으로 나온다.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보다 보니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유진 문화기획자는 “생존수영이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수영 수업은 있는데 수영장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책에는 시간과 의미가 채워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정명 교수는 “정치인들은 무언가가 좋아 보이면 준비 없이 실행부터 시킨다. 그러면 당장 그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든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당해내지 못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문화적인 성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김현규 부회장은 “문화예술은 소외된 사람과 학생을 구제하는 교육도 아니고 천재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문화예술을 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지만 게임도 문화다. e스포츠 선수 패키지(이상혁)의 연봉은 35억 원이다.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도티는 초등학교생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사교육 시장과



김혜준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

교육환경의 프레임에 문화예술을 넣으면 안 된다. 작년 씨티은행은 지점의 80%를 폐쇄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은행원, 판검사가 아니다.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연극 분야 예술강사도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도 배제할 수 없다. 20~30년 후에는 그들이 한민족의 구성원이 된다. 다문화를 담아내는 방법은 문화적인 교육밖에 없다. 향후 이들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을 추가했다.

이동민 위원은 문화예술교육이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처럼 사업 단위로 지역적인 문제만 논의하다 보니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단초를 잡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문화예술을 특정 영역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다루어야 하는 의제로 등장시켜야 제반 환경이 좋아지며, 헌법과 문화기본법, 문화현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타 부처와 연계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법,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을 연결하고 보편적인 부분과 특수한 부분을 같이 아울러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앞으로 계속될 현장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문화비전 2030’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최성열

컨셉추얼 패션 디자이너 권자영

미학과 혁신 사이에서 동시대의 삶을 이야기하다

- 1 컨셉추얼 패션 디자이너 권자영.
- 2 개인전 <Dear My Friends-BAGS>(2013).
- 3 개인전 <Unnatural Arrangement>(2016).



권자영은 '컨셉추얼(conceptual) 패션 디자이너'다. 컨셉추얼 패션이란 패션 문화의 개념과 의미에 집중하여 조각, 패션, 음악, 춤, 미디어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 예술로 우리의 몸과 몸을 둘러싼 공간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며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즐거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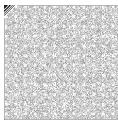
왜 컨셉추얼 패션인가?

나는 대학에서 섬유미술과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시각 디자인, 영상, 조각, 음악, 퍼포먼스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성격 탓에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접하면서,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을 무렵 전형적인 패션 산업 프로세스에 변화가 일었고, 문화예술계에도 장르 간 해체와 융합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패션을 바라보니 좀 더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이 가능했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패션 아트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전시하면서 패션 문화와 미학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했다.

초기에는 보편성을 뒤집는 재료와 형태에 집중해 미술의 관점에서 의복을 재구성했다. 빵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냄새, 맛과 추억을 시각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 <The Story about Bread and Cupcakes>(2009)를 시작으로 옷의 구조와 물성에 변화를 주는 해체와 재조합의 과정을 거쳐,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복합적인 형식으로 발전했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분야의 기술을 습득해서 독립적으로 헤치고 나가야 했다. 의상 패턴, 봉제, 염색, 소재 개발은 물론 세트와 소품도 직접 제작했다. 사진과 영상도 혼자 연습해서 직접 작업했다.

무모한 도전이고 고단한 일이 되리라는 예상대로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끈기와 참을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쉽게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작업의 대부분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전방위 예술가가 되었다. 모든 작업은 내



손에서 이루어진다. 어쩌면 나 자신이 컨셉추얼 패션의 결과물인 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이지 않은 컨셉추얼 패션을 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작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동안 GS 칼텍스 ‘어게인 2002 박지성 편’을 비롯해 TV 광고와 영상, 뮤직비디오, 일루서니스트 이은결의 〈The Illusion〉과 페스티벌 봄, 두산 아트랩의 공연 등에서 미술과 의상을 담당했다. 여러 협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개인 전시를 열고 그룹 전시와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너와 나 우리의 시간, 아름다운 인연의 기록

여러 영역을 넘다들며 작업하다 보니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중에는 예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 친구, 내 삶과 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이 인연을 의미 있게 만들어보고자 인생의 아름다운 벗, 우리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시리즈의 첫 번째는 〈Dear My Friends-BAGS〉전(2013)이었다. 나의 추억과 시간이 담긴 재료, 오래된 바지, 가죽재킷, 자투리 천 등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가방을 만들어 선물했다. 친구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가방을 사용했고, 나는 가방이 그들의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었다. 친구들에게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을 손글씨로 적어달라고 했다. 친구와 나의

시간이 함께 녹아 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뮤지션 레이첼 야마가타, 노브레인의 기타리스트 정민준, 현대미술가 최우람, 동양화가 정해진, 건축가 황준하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의 두 번째는 자투리 가죽과 오래된 가죽 옷을 모아 자르고 이어 붙여 숲과 나무를 표현한 〈Unnatural Arrangement〉(2016)였다.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으로 나누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은유하며 재단 후 버려진 자투리 조각을 모아 작은 나뭇잎을 만들고, 그 나뭇잎으로 숲과 나무를 표현했다. 쓸모없음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이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전시에는 일루서니스트 이은결과 뮤지션 송은지가 퍼포먼스 공연자로 참여했다. 나의 작업이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서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모습, 미술과 패션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그 시간과 공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기록했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다.

패션은 유동적이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는 디자인 상품,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무모함과 용기로 나의 한계에 또다시 도전하는 중이다.

글·사진 권자영 여성복과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거쳐 광고, 영상, 공연에서 의상과 미술 담당 디렉터로 일했으며, 리빙 디자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디자인스튜디오 블랙십(www.blacksheepby.com) 대표이며, 패션과 리빙 스타일 브랜드 블랙십바이를 운영하고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느느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의 시 <봄길> 중에서

청계천
사진 조현우



〈채식주의자〉 오역 논란의 마무리

창작과 오역 사이

지난 1월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오역 논란이 국내외에서 다시 불거졌다.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원작자와 함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후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국내외 문학평론가 및 연구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반면 이번에는 스미스 자신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논의를 주도한 점이 달랐다. 또 영어권 언론들이 ‘효과’나 ‘엑티비스트’ 같은 다양한 용어를 쓰면서 스미스의 과감한 번역에 대한 두둔에 나선 것도 특기할 만했다.

모든 번역은 창조적이다?

스미스는 미국 〈LA 리뷰 오브 북스〉 1월 11일자 에 번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우리가 번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또 매사추세츠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계기 국제인문포럼’에 서도 이를 토대로 입장을 밝혔다.

스미스가 밝힌 번역에 대한 견해는 요약하면 “모든 번역은 ‘창조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어떤 두 언어에서도 문법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어 역시 각기 다르고, 심지어 구두점조차도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 “언어는 서로 다르게 기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번역은 서로 다른 수단에 의해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차이, 변화, 해석은 비단 완벽하게 정상적”이라고 자신의 번역을 옹호했다.





1
기자회견에서 소설
〈채식주의자〉와 〈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한강.

2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бора 스미스.

3
〈뉴욕커〉에 실린 '한강과
번역의 복잡성' 기사
갈무리.

하지만 이는 번역에 대한 일반론일 뿐이며 그
간 지적받아온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
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외 문
학연구자들은 스미스가 한국어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 한국어 대화나 설명에서 생략된 주
어를 엉뚱하게 붙인 것 등 번역 대상인 언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역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 "톤(tone, 전
체적인 분위기)과 목소리의 변화가 너무 커서
원본과 다른 작품이 되었다"고까지 했다.

스미스는 "모든 번역가들은 정확성에 깊은 주
의를 기울인다. 동시에 모든 번역가들은 인간
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한다. (중략) 내가 부
주의와 오만함으로 한강의 작품을 배신했다

는 게 사실일까? 물론 나는 한강을 숭배할 정
도로 사랑하고 그녀의 작품을 아주 천재적이
라고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
겠지만, 내가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언어를 겁
없이 번역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렇게 된 것일
까?"라고 쓰면서 기술적인 오역들에 대한 확
답을 유보하거나 혹은 기술적인 오역 없는 번
역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기를 피했다.

톤에 대해서는 "나는 당연히 과도하게 수사적
인 영어 문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
로 노력했으며, 무의식적으로도 그러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강은 번역
가들이 편집자와 작가 둘 모두와 계속 상의해
야 한다는 점, 그녀가 내 번역을 읽었으며 내
번역이 그녀의 글쓰기가 가진 고유의 톤을 포
착하고 있음을 좋아한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
으로 설명해왔다"며 톤의 변화가 있었다 해도
작가와 합의된 것임을 강조했다.

논란의 마무리는 원작자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스미스에 대한 해
외 언론의 옹호가 이어졌다. 〈뉴욕커〉는 1월 15
일자 '한강과 번역의 복잡성' 기사에서 스미
스의 번역은 "서구 독자들을 위해 변형을 가한
것이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작가의 톤을 잘
반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디언〉은 '번역
(오역)에서 길을 잃다? 한국 소설의 영어 해석
이 평론가들을 들고 일어나게 했다'라는 기사
에서 번역가의 유형을 '오리지널리스트'(원본
주의자)와 '액티비스트'(감각한 변형자)로 구분
하면서 한국 번역가들은 전자가 주류지만 모
든 번역가는 두 가지 면모를 다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가라앉힌 것은 원작자인 한강이었다.
1월 30일 스미스는 오역 논란을 빚은 60여 개
문장에 대한 수정 목록을 해외 출판사 측에 전
달했는데 이에 대해 한강은 한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몇몇 실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만, 그 실수들이 이 소설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되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책
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글 권영미 뉴스1 기자 · 사진 제공 한겨레

다시 불거진 #문단_내_성폭력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으려면

또 한 번의 들불이다. 할리우드를 발각 뒤집어 놓은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상의 운동) 캠페인에 이어 여성 검사들의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이 잇힐 뻔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시 한 편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겨울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발표한 시 〈괴물〉을 통해 젊은 여성 문인과 편집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위계 폭력을 고발했다. 지난 두 달간 버섯하게 말라가던 시에 불이 붙었다. 과거의 들불이 그랬듯 이번에도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계간지 〈황해문화〉에 수록된 최영미 시인의 〈괴물〉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최 시인은 젊은 여성 시인은 물론 여성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는 한 원로 시인을 정조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한 시의 파급력은 컸다. 최 시인은 개인이 겪은 사건을 폭로하는 데서 나아가 문단 내 성폭력이 일상화된 이면의 구조를 들춰냈다. “문단의 메이저 출판사, 잡지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남성 문학 권력의 요구를 거절하면 작가로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최 시인이 문제 삼은 것은 “그런 문화를 방조하는 분위기,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과거의 들불은 왜 사그러들었나?

피해자들의 폭로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희롱·추행·폭행을 가한 문인들의 실명과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실명을 폭로한 글의 힘은 대중의 지지 속에 폭발력을 얻었다. 그러나 폭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다수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고 가해 남성들은 고발자들에게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다. 일부 가해자들은 일방적인 사과나 절필 선언 등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나섰을 뿐 어느 누구도 ‘자수’하거나 ‘자백’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실이 밝혀진 박범신 소설가는 신작 소설 〈유리〉의 출판 시기를 늦췄지만 펜을 꺾은 것은 아니었다. 예정 시기보다 1년여 늦춰 소설을 내냈을 때 대다수 언론이 그를 인터뷰하며 귀환을 알렸다. 그만큼 한 번 쟁취한 문학 권력의 힘은 거센 폭풍을 잠재울 정도로 공고했다.





성폭력이 빈번한 집단의 특성,

공고한 위계 질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분야의 공통점은 위계 구조가 공고하고 구태의연하다는 점이다. 검찰, 언론, 문단 등 어느 하나 특정할 것 없이 남성 중심으로 구축되고 위계화된 한국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집단이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연줄이 힘을 발휘하고 등단 카르텔 속에 종건 문인들이 크고 작은 권력을 누리는 문단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집단 중 하나이며 인간 세상을 버려 글로 품어내는 공간으로서 가장 먼저 변혁에 나서야 할 책임도 있다. 이 시점에서 떠올릴 만한 사건이 있다. 지난 1991년은 대한민국 문학 역사에 작은 눈금이 새겨진 해다. 그 해 마광수의 <줄거운 사라>가 출간됐다. 외설, 문학의 타락이라는 빨간 딱지

속에 마광수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하지 않은 한 문인에게 사회의 처벌은 가혹했다. 평생 우물중에 시달렸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27년 후, 문학계에 펼쳐진 논란의 장에 문단의 거목 역할을 했던 고은 시인이 소환됐다. 최 시인의 작품 속 '괴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화 투사로서 세상의 불의에 당당히

1
지난 2월 6일 열린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 #미투 운동,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화계 성폭력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

3
지난 1월 12일 우롱센텐스가 주최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후 1년, 당신의 문법은 어디에 근거하니까?' 좌담회 모습. (우롱센텐스 제공)

맞섰던 그의 사과는 단출했다. 그럼에도 고은 시인의 문학적 성취를 감안해 면죄부를 주자는 옹호론이 고개를 든다. 마광수에겐 주어진 않았던 일탈의 특권이 고은에게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돌고 돌아 문단 권력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판도라 상자' 끝의 희망

'#○○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고 사계절을 낚지만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회의 회부터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작가회의에는 오늘까지도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조차 없다. 여전히 문학계 내 자성의 목소리도 미약하다. 한국시인협회는 과거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인물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누군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한다. 온갖 재앙과 죄악이 담겼던 이 상자의 끝엔 희망이 남아 있기를 바란다. 물론 그 희망은 거저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문단의 위계 질서를 견어내는 것, 카르텔의 고리를 끊는 것, 크든 작든 일말의 권력을 전 이들부터 피해 현장에 눈감지 않는 것, 치열한 토론을 거쳐 가해자 단죄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서 희망이 피어난다. 우성과 열성이 위아래로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해체될 때, 그때 기울어진 저울이 조금은 평형으로 이동할지 모른다.

글 서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한겨레

우이신설선 '달리는 북한산' 운행

북한산이 달린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봄을 맞아 우이신설선을 운행하는 열차 1편성(2량)을 '달리는 북한산'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달리는 북한산'은 정다운 작가와 정은혜 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리는 미술관', 서울도서관과 성북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달리는 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주제별 래핑(wrapping) 열차이다. 지하철 탑승만으로도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에 올라간 기분을 느끼고 산속의 동식물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열차 안에 들어온 북한산

'달리는 북한산' 열차를 타면 마치 북한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출입문과 바닥을 비롯한 실내 전체에 북한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을 입체적으로 부착해놓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오소리, 찌르레기,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산괴불주머니, 산딸나무, 애기똥풀 등 북한산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식물 16종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일러스트는 도도새를 그리는 김선우 작가, 북한산 사진은 박길종 작가의 작품이다. 의자도 촉감이 차가운 다른 지하철과 달리 초록, 하늘, 황토처럼 자연에 가까운 색으로 만든 패드로 감쌌다. 의자 뒤에는 아침과 저녁에만 돌아다니는 멧토끼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산 생태계의 깃대종 '산개나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북한산 원도봉계곡과 용어천계곡 등지에서 서식하는 고라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열차 전체에 펼쳐져 있는 북한산 도감을





1, 2
'달리는 북한산' 열차에 타면 마치 북한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3
전체 36량(18편성)의 열차 중 4량에서는 '나도 기관사' 체험을 할 수 있다.

4
전체 13개 역 중 북한산우이역, 솔샘역, 정릉역, 보문역, 성신여대입구역, 신설동역 등 6개 역사는 아트스테이션으로 만들었다.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생태교육의 현장이다. 우이신설선 정릉역, 솔샘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 등에서 내리면 다양한 길을 따라 북한산에 닿을 수 있다. 가는 길에 운 좋게도 '달리는 북한산' 열차를 만나면 북한산에 사는 동식물들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상업 광고 없는 문화철도

우이신설선은 '달리는 문화철도'를 표방하며 무분별한 상업 광고가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달리는 ○○○' 시리즈 3대 외에 전체 36량(18편성)의 열차 중 4량에서는 '나도 기관사'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열차 1편성이 2량뿐이라 아담하고 진행 방향이 흰히 보이는 무인지하철의 특성을 활용해 열차 전면에 우주열차 운전체험존을 마련해놓았다. 전용 모자를 쓰고 레버를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며 잠시나마 기관사가 되어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전체 13개 역 중 북한산우이역, 솔샘역, 정릉역, 보문역, 성신여대입구역, 신설동역 등 6개 역사는 아트스테이션으로 만들었다. 아트스테이션에서는 상설전시 외에도 시즌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신설동역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소개하는 <색채의 미술사 천경자의 여행, 그녀가 바라본 풍경>전을 진행 중이다. 와이드컬러 매체 6개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가전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윤중식의 <소녀>, 박노수의 <풍안> 등 6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광고를 대신해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회원관의 대표 소장품 이미지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분기별로 교체하며 1년 동안 24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둘러싼 벽 전면에 설치한 김영나 작가의 작품 <SET v.9:패턴>을 감상할 수 있다. 6개 아트스테이션의 에스컬레이터 옆 벽면을 활용한 한·중·일 아트포스터 전시 <100개의 바람, 100인의 바람>은 3월 31일까지 열린다.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을 기념하는 '한·중·일 문화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베이징에서 시작해 도쿄, 서울, 광주 순회 전시에 이어 우이신설선에 종착했다. 성신여대입구역의 '유아더스타존'과 북한산우이역의 '쉽'은 착시효과를 일으켜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왜상아트 작품으로 숨겨진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달리는 시리즈는 계속된다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 2일 개통 이래 상업 광고 없이 전 역사 내에 문화예술 광고만 게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¹⁾ 그래서일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는 문화철도'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96%에 달했으며 주제별 열차를 증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북한산 다음으로 어떤 달리는 시리즈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서울문화재단

1) 총 13개 역사에 설치된 와이드컬러(37개), 레일형 전지 포스터(95개)를 비롯해 각 열차 내 벽면 상단 모서리 광고(1량당 11개)를 활용한다.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3.13—3.23
서치라이트
(Searchwright)

NAMSAN

4.5—4.15
처의 감각
작 고연옥, 연출 김정
프로젝트 내친김에

4.26—5.7
손 없는 색시
작 경민선, 연출 조현산
예술무대산

SEASON

5.17—6.3
에어콘 없는 방
작 고영범, 연출 이성열
극단 백수광부

10.4—10.14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
공옥진의
병신춤 편
공동창작,
연출 윤한솔
그린피그

10.25—11.4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작·연출 최치언
창작집단 상상두목

ARTS CENTER

11.15—11.25
두 번째 시간
작 이보람,
연출 김수희
극단 미인

9.4—9.16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세
연출 강량원
극단 동

2018
PROGRAM

12.5—12.7
국제공동제작 프리-프로덕션
나와 세일러문의 지하철 여행 (가제)
공동창작 이경성(한국), 사토코 이치하라(일본),
윙 칭 안 버디 (홍콩)

2018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공연작품

인사이드더 -헤지2

(Insider -Hedge2)

일시 : 3월 9일 (금) 19:30

작 : 시모리 로바(詩森ろば)

연출 : 최진아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51 Aviación, San Borja)

일시 : 3월 10일 (토) 15:00

작 : 가미사토 유다이(神里雄大)

연출 : 김정

저편의 영원

(Eternity on the opposite shore)

일시 : 3월 11일 (일) 15:00

작 : 오사다 이쿠에 (長田育恵)

연출 : 강량원

심포지엄

사실과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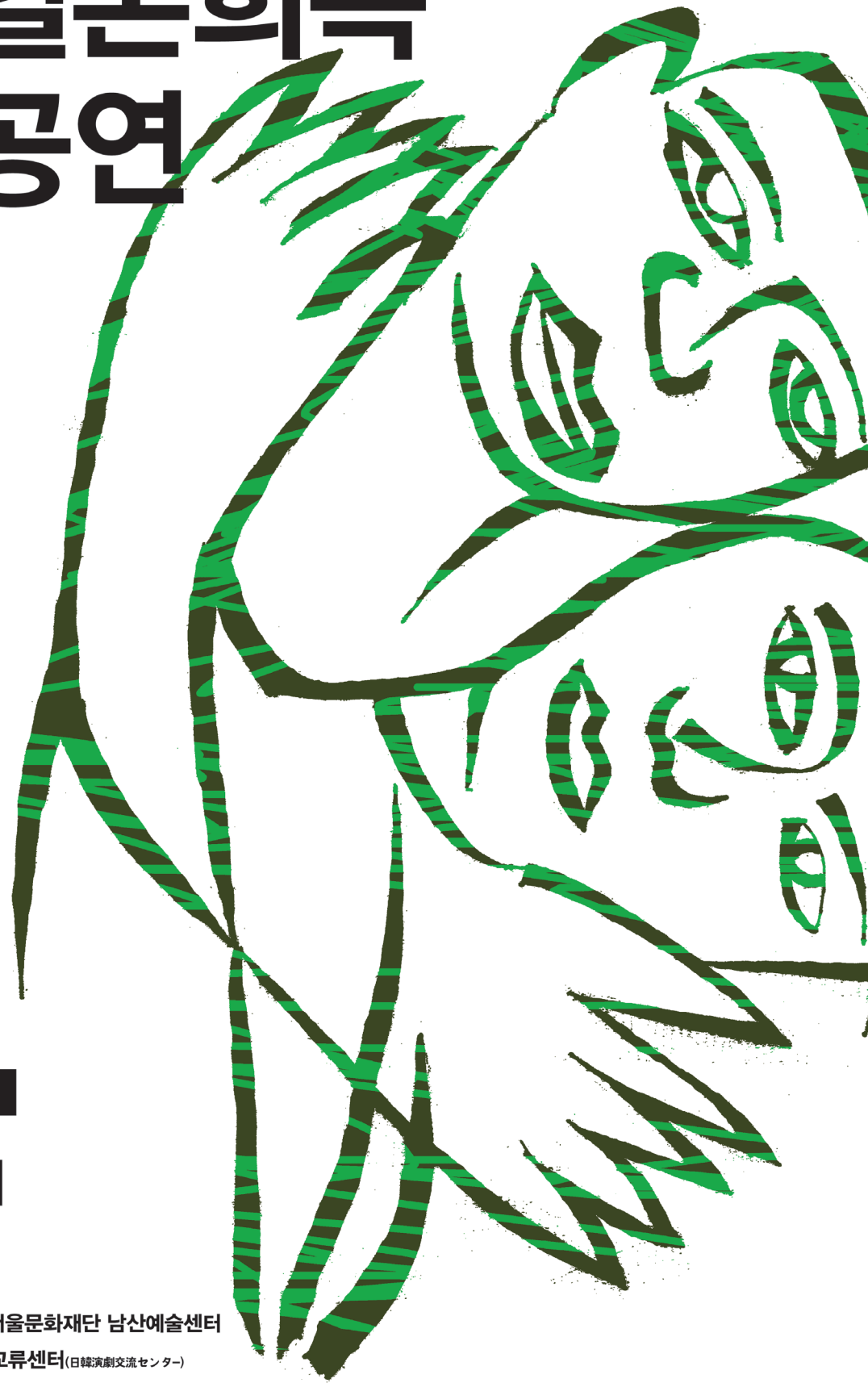
일시 : 3월 10일 (토) 공연 후

2018.
3.9 - 3.11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주최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재)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후원 서울시 협력 일한연극교류센터(日韓演劇交流センター)





우리소리도서관

오감으로 만끽하는 국악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한 우리소리도서관은 마치 작은 사랑방 같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만 읽는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문이 열리면 잔잔한 해금 가락이 흘러나오고, 서가 곳곳을 민속 인형과 국악기, 희귀 자료가 장식하고 있어 작은 박물관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12월 14일 개관한 우리소리도서관은 도서관이면서 전시장이고, 공연장이자 음악감상실이기도 하다.

도서관과 공연장을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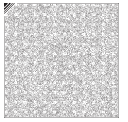
익선동과 운니동 일대의 국악로는 예로부터 국악의 중심지였다. 판소리 등 민속 성악을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1930~1940년대 활발히 활동한 조선성악연구회를 비롯해 이왕직아악부, 국립국악원, 국악사양성소, 국악예술학교 등 국악 관련 핵심 기관들이 대부분 이곳을 거쳤다. 또한 고 박록주를 비롯한 국악 명창들의 생가와 국악 전수소, 악기상이 밀집해 있어 일찌감치 국악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종로구 내 17번째 구립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은 현재 종로



- 1 누워서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빈백을 비치한 국악감상실.
- 2 4층 복도에 마련된 개관기념전 <우리소리도서관과 국악로>.
- 3 무용, 국악 강좌 등이 진행되는 국악누리방.
- 4 이달의 추천 도서와 추천 음반을 전시한 5층 열람실 입구.

1·2·3·4가동 주민센터 건물의 4층과 5층(587㎡)을 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악인 외에도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 4층 복도에 개관기념전 <우리소리도서관과 국악로>를 마련한 것도, 국악로의 역사적 배경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국악로를 거친 주요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장르별로 분류한 명인·명창의 사진, 국악 유물 등 전시 자료들은 대부분 국악 음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의 기증품이다. 그 밖에도 국악방송, 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 귀한 손길을 보냈다. 개관기념전이 열리는 4층 복도 양쪽으로는 3개의 프로그램실이



있다. 국악누리방, 소리사랑방, 다목적실이다. 특히 국악누리방과 소리사랑방은 방음 패넌로 벽을 두르고 벽거울을 설치해 국악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했다. 5층에는 1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 있다. 도서관에서 국악 콘텐츠 기획을 맡은 백주희 씨는 “도서관과 공연장이 같이 있어 공연, 강의, 야외 공연 등을 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3월 국악 영상 상영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정규 국악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신진 국악인 초빙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 열릴 여성 국악 강좌는 우리소리도서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국악 애호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직접 공연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그 밖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 체험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 소리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다

4층이 체험과 공연,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라면, 열람실과 국



악감상실, 야외 공연장을 갖춘 5층은 우리 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듣고 읽으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국악 특화 도서관이기에 일반도서(2,150권)보다 음원 파일, CD, LP 등의 비도서 자료(6,650여 점)가 훨씬 많다. 소장 자료는 궁중음악과 민속음악, 창작국악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 여류 명창 이화중선이 1928년 녹음한 유성기 음반 〈춘향가 중 이별가〉, 프랑스제 1930년대 축음기처럼 희귀 자료도 있다. 규모는 작지만 국악 자료만큼은 대형 도서관 못지않다고 자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악감상실 내에는 총 4대의 음원 감상 전용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다. ‘우리소리도서관 음원 검색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음원을 감상할 수 있다. ‘종로에서(愛書)구립도서관’(http://lib.jongno.go.kr) 누리집에서 소장 목록을 검색해 원하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 방문하면 편리하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관외 대출은 불가능하다.

도서관 내에서 감상을 위한 이동식 CD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을 헤드폰과 함께 대여할 수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를 활용해 도서관 5층 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랑방처럼 꾸며놓은 국악감상실이 인기다. 딱딱한 의자 대신 누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빈백을 비치해, 편안하게 국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봄과 가을에는 야외 공연장에서도 도서를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열람실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도서를 가득 채운 서가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키에 맞춘 테이블이 있다. 작지만 개성 있는 공간이 어 깨를 맞대고 조화를 이루는 5층 공간은 우리소리도서관이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이상향을 보여준다.

“요즘 특별한 주제의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소리도서관은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어요. 국악이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도 자작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했어요. 전통음악을 즐겨 감상하는 국악 마니아와 전공자뿐만 아니라 퓨전 국악 같은 장르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해요.”(백주희)

글 고정원 자유기고가 · 사진 제공 우리소리도서관

사진 책방 '이라선'

동네 책방의 품격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저마다의 개성과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점을 넘어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네 책방들이 있다. 서촌에 자리한 사진 책방 '이라선'도 그러한 공간들 중 하나다.

- 1 빈티지한 분위기의 책장에 전시하듯 책을 진열해놓았다.
- 2 한쪽 벽면에는 추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 붙어 있다.

이라선만의 특별한 큐레이션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한 다음 오른쪽으로 경복궁을 둔 채 걸어가다 보면 머지않아 '통의동 보안여관'을 마주한다. 이라선은 통의동 보안여관 옆의 좁은 골목길에 있다. 통유리 너머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보이고 테이블 주변으로 전시, 혹은 판매 증으로 보이는 책들이 늘어서 있다. 얼핏 보면 책방인지, 카페인지, 혹은 갤러리인지 개인 작업공간인지 알 수 없지만 이곳이 내뿜는 분위기에 혹했다면 개폐식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사진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다.

누군가의 서재에 들어선 듯한 아늑함이 느껴지는 이라선은 패션 사진가로 활동 중인 김현국 씨와 대학원 미학과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김진영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각기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진과 출판에 대한 열정과 노하우를 키웠던 이들은 세상에 있는 좋은 사진집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2016년





10월, 이곳의 문을 열었다. 부부가 어린 시절부터 수집한 사진집들이 이라선의 첫 책장을 채웠다.

“사진집은 한정 수량으로만 출판되는데 모두 팔려 절판되고 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저희가 보유한 희귀 사진집이 200권 정도였는데 이 책들을 이라선에서 먼저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권도 남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좋은 책을 종종 싸매 혼자만 보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니 보람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책방이다 보니 이라선에서 판매하는 책들에는 모두 주인의 취향이 담겨 있다. 이라선이 추구하는 큐레이션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사진작가의 이름이나 사진집의 주제뿐만 아니라 북 디자인을 세심하게 살핀다. 사진집은 여느 책들보다 표지와 내지의 지질과 소재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어 디자인이 택한 물성에 따라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 때문에 책의 내용과 북 디자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책들을 선호한다. 또한 사진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의 책들은 빠뜨리지 않고 소개한다. 의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집을 이라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가격으로 책을 공급하기 위해 해외 출판사들과 직접 거래해요. 해외의 유명한 사진 전문 출판사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좋은 책을 출판하는 독립 출판사와도 많이 거래하고요.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진집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이라선은 직접 보지 않은 책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2~3주 주기로 신간을 들여오기에 모든 책들을 확인하고 선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표지만 보고서는 사진집에 담긴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고객들 또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표지를 싼 샘플 책들을 진열해놓았다.

누군가의 서재에 있는 듯한

이라선의 한쪽 벽면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 붙어 있다. 때문에 책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공간이기 보다는 친한 지인의 서재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빈티지한 분위기의 책장과 라운지 의자, 한낮의 햇살과 어우러지는 간접 조명 등이 이러한 느낌을 더한다. 책을 진열한 것이 아니라 전시한 듯한 인테리어는 부부가 직접 고민



하고 실행한 결과물이다.

“사진집을 하나의 작품으로 대하면서 오롯이 사진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집 안의 서재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는데, 수도권에서 가보지 않은 재할용 가구 판매점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았죠.”

두 부부는 이라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책방 업계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로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며 얻은 경험, 그리고 사진집과 고객 사이에서의 적절한 중간자 역할을 꼽는다. 이라선의 큐레이션을 신뢰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단골들이 늘어났고, 우연히 찾아온 고객일지라도 고객의 취향에 맞춰 좋은 책을 소개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irasunofficial)에 매일 오늘의 책을 추천하고, 월 1~2회 북 토크를 여는 것도 사진집과 고객을 잇는 중간자 역할 중 하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배’(離娜船)라는 이름처럼, 이라선은 아름다운 사진집을 찾는 이들의 보물선 같은 공간으로 자리한다.

글 윤현영 자유기고가 · 사진 제공 이라선



뮤지컬 <레드북>과 연극 <미저리>

이런 여자 본 적 있나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말하는 주체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무대 위의 여성은 주로 아름다운 외모가 강조되거나,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이다. 여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다. 뮤지컬 <레드북>과 연극 <미저리>는 로맨틱코미디 뮤지컬과 오싹한 스릴러 연극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색다른 캐릭터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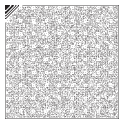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싶었던 여인

<레드북> 2. 6~3. 30,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난 슬플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해”라고 읊조리며 슬프지 않다고 말하는 안나.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19세기 빅토리아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라니? 이미 관객들은 이 엉뚱하고 유쾌한 설정에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여자라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곳곳이 구직활동 중인 안나의 모습은 현실을 옮겨놓은 것 같다. 안나의 글쓰는 재능을 알아본 청년

변호사 브라운은 안나에게 “당신의 글을 써보라”며 응원한다. 안나가 여성들만의 문학회인 ‘로렐라이 언덕’에 들어갈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로렐라이 언덕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곳이다. 심지어 <레드북>이라는 이름의 잡지까지 낸다. 안나는 이곳에서 자신의 야한 추억들을 소설로 쓰며 스타 작가가 된다. 사람들은 <레드북>을 몰래 사서 읽는다. 그럴수록 <레드북>은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안나는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추행하려던 유명 평론가를 폭행해 감옥에 갇힌다. 정신병이 있다는 거짓말로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브라운과 이를 고민하는 안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되던 시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안나는 국내 창작뮤지컬계에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티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어둠을 남겨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다. 로렐라이 언덕의 친구들은 “당신은 죄가 없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고, 그 남자가 나쁜 거예요”라며 안나의 손을 잡는다.

〈레드북〉은 시종일관 유쾌하다. 무대 배경은 동화책을 펼친 듯하고, 넘버 가사들은 귀에 쏙 박힌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온 성차별은 물론, 문단 내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 등 사회의 여러 단면을 지적한다. 함께 분노하는 동시에 여장남자 로렐라이 등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손을 잡고 응원하고 싶어질 것이다.

2016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신작으로 선정돼 지난해 2주간 관객들을 만난 뒤 올해 본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아이비와 유리아가 안나를, 박은석과 이상이가 브라운을 연기한다.

사랑과 집착 그 사이에 있는 여인

〈미저리〉 2. 9~4. 15,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베스트셀러 작가 폴 웰턴은 자신의 별장이 있는 시골마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다. 폴이 눈을 뜬 곳은 낯선 여자 애니 월킨스의 집. 폴의 ‘넘버원 팬’을 자청하는 애니는 간호사 출신이다. 애니의 헌신적 간호로 폴은 의식을 회복한다. 보통의 작품이었다면 둘의 만남은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애니는 평소 쉽게 보던 캐릭터가 아니다.

〈미저리〉는 작품 속 폴이 쓴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폴은 순애보적인 미저리를 내세운 이 시리즈로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미저리는 애니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했다.

폴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애니는 그의 소설을 읽고 격분한다. 폴이 미저리가 죽는 완결편으로 소설 시리즈를 마감했기 때문이다. 폴에게 헌신적이던 애니는 갑자기 돌변해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인다. 애니는 부상당한 폴에게 소설을 새로 쓰도록 강요한다. 살해 위협을 느낀 폴은 어쩔 수 없이 애



1 뮤지컬 〈레드북〉.

2 연극 〈미저리〉.

니의 요구를 들어주려 한다. 애니는 친절과 광기의 경계를 무시로 넘나들며 폴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애니의 끝없는 집착에 폴은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다.

작품의 주인공은 폴이지만 극을 이끌어가는 건 강한 여성 캐릭터 애니다. 애니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하게 표출하는 여성이다. 다만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 좀먹게 하는 방법이지만.

연극 〈미저리〉는 스티븐 킹 원작의 동명 소설과 로브 라이너 감독의 영화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번 연극에서 황인뢰 연출가는 집착과 광기에서 오는 긴장감뿐만 아니라 애니의 서툰 사랑에 초점을 맞춰 애뜻함까지 살렸다. 국내 초연에서는 배우 길해연, 이지하, 고수희가 새로운 애니를 선보인다. 폴 역은 김상중, 김승우, 이진명이 맡아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연극 〈미저리〉는 2015년 브로드웨이 초연 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연극 데뷔작이기도 하다.

글 양진하 한국일보 기자 · 사진 제공 PRM, 스토리피



전시 <두 번째 풍경>과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

일상과 예술의 환기

예술작품, 특히 미술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일상의 환기이다.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주변 환경을 다시 둘러보게 한다. 다시 둘러본다는 것은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과는 다르게 인식함을 뜻한다. 그런데 작품은 대부분 극히 은유적이다.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를, 깊은 사유의 결과물을 최대한 응축시켰기 때문이다. 작가의 예술혼이 농축된 작품을 이해하려면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더 사유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두 번째 풍경>전,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전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전시다.

세상의 진짜 풍경

<두 번째 풍경> 1. 23~3. 2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장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 9명의 회화,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김기수, 김상균, 노충현, 민, 안창홍, 이창원, 장종완, 홍순명, 황세준이다. 모두들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30~60대 작가들이다.

전시의 주제는 제목 <두 번째 풍경>에 잘 나타나 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풍경이 아니라 그 뒤에 녹여진 두 번째 풍경, 즉 한 번 더 생각하면 인식할 수 있는 풍경을 보자는 의미다. 영문 전시명 <The veiled landscape>가 이를 확실히 말해준다.

황세준의 작품 <세계배Ⅳ>는 미군 캠프와 평범한 마을 위로 전투기가 나는 풍경을 담았다. 첫 번째 풍경은 눈에 보이는 그 자체의 풍경이다. 두 번째 풍경은? 우리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휴전 상태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세계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그린 것 아닐까. 거대한 검은 전투기가 장악한 남북 분단의 안타까운 현실, 통일의 절박함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풍경이다.



김상균의 〈Winter comes〉는 광활한 겨울 풍경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있을 수 없는 풍경, 초현실적 풍경이다. 광고나 영화, 드라마 등 여러 미디어의 이미지를 재조합해 새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화폭에 그렸다. 조작된 이미지, 가짜 풍경인 것이다. 작가는 소비의 미덕, 사익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침병인 대중매체의 이미지로 대중매체를, 자본주의의 맹점을 비판한다.

정원의 맨드라미를 담은 안창홍의 〈가을과 겨울 사이〉, 낚선 풍경의 동물원을 그린 노충현의 〈원숭이〉, 홍순명의 〈뽕묵 2014년 4월 25일〉, 장중완의 〈바르게 살자〉 등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풍경 이면의 물질만능주의,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불안, 불안정한 현대인의 삶 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풍경을 담아냈다.

호랑이에 대한 사유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 1. 26~3. 18,

국립중앙박물관

이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고대부터 현대까지 호랑이를 주제나 소재로 다룬 한국, 일본, 중국의 회화와 조각 등 145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3국의 호랑이 미술품이 어떻게 ‘같으면서도 또 다르지’를 비교할 수 있는 셈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 중국의 국가박물관의 협력 전시이다.

전시는 5부로 구성됐다. 한·중·일 각국의 호랑이 미술품이 1~3부에 걸쳐 각각 소개된다. 이후 3국의 대표작을 한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는 4부가 이어지며, 5부는 호랑이를 새롭게 해석한 근현대 작품들로 구성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호랑이 그 자체보다 호랑이의 보이지 않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다. 작품 속 호랑이들은 저마다의 상징을 갖고 다양하게 변주됐다. 갖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의 옛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미술품 속에 나타나는 각종 동식물, 문양의 상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모란꽃이나 공작새는 부귀영화, 거북 같은 십장생은 장수, 포도나 석류같이 씨가 많은 과일은 자손 번창, 잉어는 출세를 상징하는 식이다. 한 번 더 생각해 이런 의미를 알면 작품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감상할 수 있다.

호랑이는 3국에서 그 융합으로 신성화 단계까지 이르렀다. 동



1 김상균의 〈Winter comes〉.

2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소나무 아래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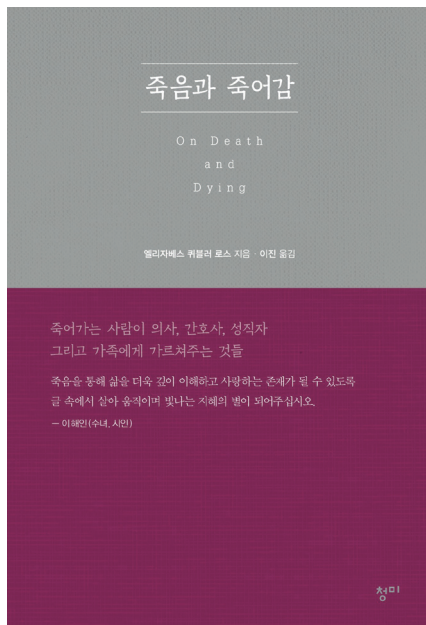
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사신의 하나로 청룡, 주작, 현무와 더불어 서쪽의 수호신이다. 땅을 수호하는 12지신 동물에도 포함됐다. 일상생활에서도 액운을 쫓아내기 위해 호랑이 그림을 붙이거나 장식물로 활용했다. 민화 〈까치와 호랑이〉가 대표적으로, 사악한 기운은 물리치고 좋은 소식을 간절히 염원한다. 불법(佛法) 수호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호랑이가 어떤 상징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사유해볼 필요가 있다.

글 도재기 경향신문 선임기자 ·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책 〈죽음과 죽어감〉과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죽을 것인가, 죽어질 것인가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공평하다. 그러나 죽음의 질은 균일하지 않고, 죽기 전에 겪어야 하는 고통의 양 또한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죽음은 지극히 개별적이다. 살기 위해 생계를 고민하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다. 삶이 펼쳐놓은 거대한 계약서의 마지막 실천 조항이기 때문이고,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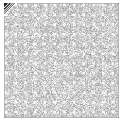
한국에서만 한 해 28만 명이 죽는다. 각종 암과 질환과 사고사. 그 모든 죽음의 단계 앞에서 숨이 붙어 있는 한 인간은 결정해야 한다. 죽을 것인가, 죽어질 것인가.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죽음의 시점을 선택의 문제로 조명하려는 책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교양서적으로 분류된 만큼, 자극적 핏대를 세우는 대신 다분히 차분하고 교양 있다. 저자는 모두 죽음의 전문가들이고, 맞닥뜨린 환자와의 내밀한 교감에서 비롯된 제언을 내놓는다. 삶이 아니라 그 반대를 말함으로써 다시 그 반대의 삶을 건드린다.

죽음을 직시하라

〈죽음과 죽어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지음, 이진 옮김, 청미

“나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받는 암 선고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냉혹하게 일깨워줄 것이다. 따라서 병을 앓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실제로 죽음과 조우하게 되건 혹은 삶이 연장되건, 그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다.”

책은 1969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으나 주제는 시대를 초월한다. 스위스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와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한 저자는 이 책에서 죽음의 5단계, 즉 부정과 고립,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과정을 최초로 정립한다. 2년 반 동안 루게릭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앓는 시한부 환자를 심층 인터뷰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과 그들 주변인이 처한 환경과 감정을 옮겨 적었다. 평생 자기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던 인간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의 상태를 책은 충실히 보여준다. 어쩔 수 없는 죽어감의 과정. 그 어쩔 수 없음의 과정은 그러나 균상식 육종을 앓고 있는 53살 환자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때로 위장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희망의 모습을 통해 감동으로



변한다.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시한부 환자를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주장, 환자의 질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하나의 핵심이다. “유족들이 얘기하고, 울고, 필요하면 소리를 지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누고 분출하게 하되, 그들이 원할 땐 곁에 있어줘야 한다. 죽은 자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유족에게는 긴 애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별개로, 현재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대신 직시하고 걸어가는 것. 저자는 각 장을 시작하며 인도 시인 타고르의 문장을 인용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길 잃은 새〉의 한 구절을 넣었다. “드는 발도 걸음이고 뒸는 발도 걸음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허대석 자음, 글항아리

이번엔 한국이다. 서울대병원에서 30년간 교수로 일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저자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다. 저자가 바라본 한국인의 죽음은 병원이라는 특정 공간에 과몰입돼 있다. 한국인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눈을 감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정말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길 바랄까?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에서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500명 중 16.3%에 불과했다. “이제 병원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가장 빈번하게 치러내는 곳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책임 동시에 병원을 고찰하는 책이기도 하다.

자연히 직접 병원에서 마주한 여러 죽음의 형태가 등장한다. 간암 말기 상태에서 급식기동원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응급실에 실려와 나흘 뒤 사망한 50대 후반의 대학교수, 남편이 죽자 목을 땀다가 뇌사 상태로 143일간 버티다 숨이 끊어진 27살 여성 등. 자연사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등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평소 왕



래도 없던 자녀가 임종 직전 나타나 환자의 연명치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뜻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신드롬’ 같은 용어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다.

책의 핵심 논지는 ‘의료에 집착하는 사회’ 비판이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중단돼야 한다는 쪽이다. 256개 의료기관의 회신 결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가운데 약 1,500명이 연명장치에 의존한 채 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2009년 보건복지부 조사를 예로 든다. 이는 저자에 따르면 죽을 수 있는 자유의 박탈이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일이다. 간암 말기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자 담당 의사와 누나를 친족살인으로 고소한 동생 등의 예에서 보듯, 동시에 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후반부로 진행되며 책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1965년 아시아 최초의 호스피스 도입국이면서도, 지난해에야 건강보험제도에 정식 편입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등장한다.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도 “병원 내에 울 공간이 없다” 같은 산 자를 위한 지적은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글 정성혁 조선일보 기자 · 사진 제공 청미, 글항아리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과
<더 포스트>

과거, 현재를 소환하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축제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 4일 열린다. 수상자를 호명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LA 돌비극장에서는 감동과 놀라움의 순간들이 펼쳐지곤 한다. 올해의 아카데미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많은 영화 중 두 편의 추천작을 소개한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하 <세이프 오브 워터>)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더 포스트>이다. 로맨틱한 판타지 영화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 드라마라는 점에서 두 작품은 판이하게 달라 보이지만, 이들 영화는 특정한 과거의 시공간을 통해 2018년의 시대정신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다름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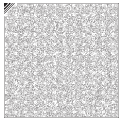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멕시코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의 신작 <세이프 오브 워터>는 1962년의 미국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1960년대의 미국이었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비중이 높았던 볼티모어의 시간은 다소 느리게 흘렀다. <세이프 오브 워터>는 그런 볼티모어에서 펼쳐지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영화의 주인공은 들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언어장애 여성 엘라이자(샐리 호킨스). 오래된 극장 위 다락방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미국 항공우주연구센터의 청소부다. 센터의 비밀 실험실을 청소하던 어느 날, 엘라이자는 온몸이 비늘로 뒤덮인 괴생명체(더그 존스)를 발견한다. 그와 교감할수록 엘라이자의 호기심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그녀는 보안 책임자 스트릭랜드(마이클 새넌)로 인해 고통받는 아가미 인간(편의상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을 실험실로부터 탈출시킬 계획을 세운다. 동료 청소부 젤다(옥타비아 스펜서), 그리고 엘라이자의 이웃 자일스(리처드 젠킨스)가 이 비밀스러운 작전에 합류한다.

농아(엘라이자), 흑인 여성(젤다), 게이 예술가(자일스), 러시아 스파이.(그의 정체는 영화를 보고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세이프 오브 워터>는 20세기 미국이 간과한 존재들이, 그들보다 더 낯설고도 이질적인 존재인 괴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공동여 묘사한다. 엘라이자 일행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탈출 계획은 의외로 수월하게 성공하는데, 그건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 때문이다. 하지만 무관심과 편견,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엘라이자는 친구들의 도움에 힘



입어 결국 사랑이라는 기적을 이뤄낸다. 인종과 성별, 심지어 종족을 초월하는 그녀의 사랑은 로맨틱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되는데, 엘라이자의 상상 속에서 흑백 영화의 주인공이 된 엘라이자와 아가미 인간이 우아하게 춤을 추는 장면은 <미녀와 야수>의 또 다른 실사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이프 오브 워



티)는 아수가 되어버린 왕자의 저주를 푸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영화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인종, 섹슈얼리티, 젠더의 다름에 가해지는 차별과 불관용을 넘어서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그 사랑에는 규정된 형태가 없다. <세이프 오브 워터>는 판타지가 가미된 1960년대 미국의 풍경과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로맨틱한 해법을 제시한다.

언론 vs 권력, 남성 vs 여성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

이번에는 1970년대 미국으로 넘어갈 차례다. 미국의 거장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의 신작 <더 포스트>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의 미국을 조명한다. 보수주의자인 닉슨이 정권을 잡으며 1960년대 미국 사회가 앞세웠던 저항과 해방, 이상주의의 기치가 흐려지고 있던 찰나, <뉴욕 타임스>의 1971년 특종 보도가 미국 전역을 뒤흔든다. 그들이 입수한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에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짓 말이 기록되어 있다. 닉슨 정부는 펜타곤 페이퍼에 관한 모든 보

도를 금지하고, <뉴욕 타임스>의 경쟁지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 캐서린(메릴 스트립)은 편집기자 벤(톰 행크스)의 도움으로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한다. 진실을 밝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인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덮고 훗날을 기약할 것인가. <더 포스트>는 일생일대의 기로에 선 캐서린의 선택을 쫓는다.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유형의 거대한 싸움이 존재한다. 진실을 둘러싼 언론과 권력의 싸움, 그리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여성의 투쟁이 그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싸움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치적 격변을 경험한 한국의 관객들에게 적지 않은 기시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 영화를 ‘정치 스릴러’라 명명하는 스피버그의 표현대로, 권력자들의 위협에 맞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언론인들의 모습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개개인의 작은 용기와 노력이 모여 보이지 않던 진실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 포스트>의 이야기는 몽클하고 감동적이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용기의 무게감에 대한 언급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기 인생과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회사를 건다는 것. 그거야말로 그분의 용기라고 생각해.” 영화 속 한 등장인물의 대사는 캐서린 그레이엄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무게와 그 숭고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하는 캐서린 그레이엄은 <워싱턴 포스트> 최초의 여성 발행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피버그의 신작은 닉슨 정부 이전에 캐서린이 맞닥뜨려야 했던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묘사한다. ‘맨스플레인’(mansplain)을 일삼는 지식인 남성들 사이에서 그녀가 “허락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라고 맞서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직업여성들이 곳곳에서 마주해야 하는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사건이자 올해의 미국이 만든” 영화, <더 포스트>에 대한 스피버그의 이 설명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촌철살인 같은 답변일 것이다.

글 장영엽 씨네21 기자

1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2 <더 포스트>.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이별 후

혼란스러운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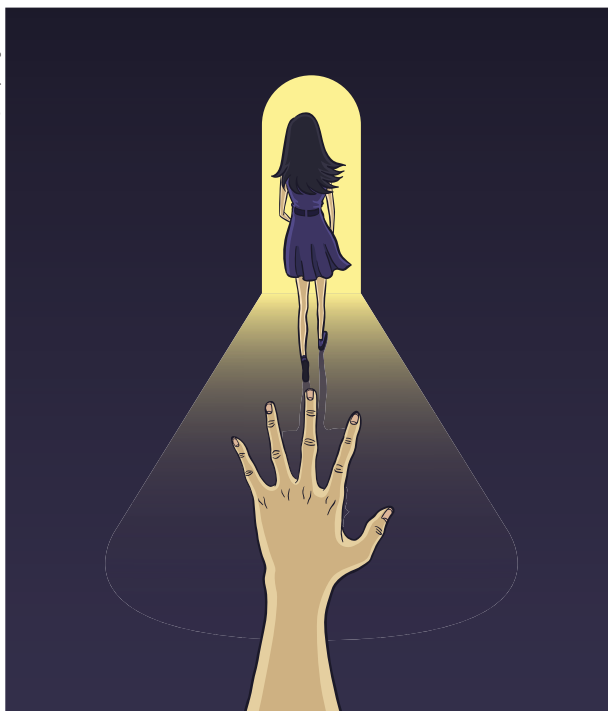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만났던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연인은 매번 힘들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마음을 몰라줬다고 이렇게 떠나버리니 현실적으로 사랑만 줬던 저는 참 허탈하네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문득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었던 특별한 선물을 이제는 저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 누군가를 위해 썼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니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자신에게 화가 나네요. 무엇을 해야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Getty Images Bank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상담 중에 연애 상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마음속에 답이 있거든요. 연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끌리면 만나고 마음이 식으면 헤어지는 거죠. 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갈까요? 어제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그 사람의 무언가가 왜 오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싫어질까요? 때로는 정말로 만남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마음의 변화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결국 그 마음의 소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결론을 내줄 수는 없지만요.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복잡한 감정이 몰아칩니다. 아픔이 오고, 미움과 억울함이 찾아오고, 미안함과 후회도 옵니다. 가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도 근사치의 답이 있는데 시간입니다. 물론 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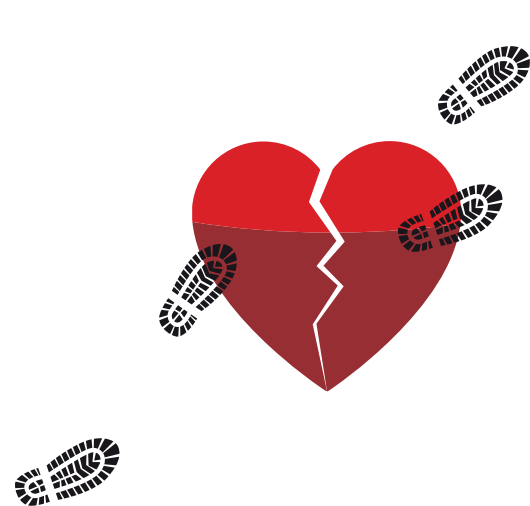
애정은 불공평한 것이어서 내가 쏟은 만큼 돌려받는다든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애정을 쏟는 방식이 서로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절반의 진실입니다.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착각에 빠집니다. 맞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또는 맞춰줬다고 말이죠. 때론 100%의 충만함 같은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객관적인 조건들의 완성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열망이 빈곳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달콤한 순간은 길게 이어지기 어렵죠. 그 이후부터는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노력의 시간입니다.

단단한 자아 만들기

사람마다 연애의 형태는 매우 다릅니다. 누가 봐도 소모적이지만 모두가 말려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민폐 커플'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 좋은 연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긴 체크리스트가 필요할지 가늠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는 연애를 통해 상대방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애가 그것을 위한 관계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것이 모든 실망과 절망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연애는 그 두 역사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주치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같을 수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는 반쪽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연애 상대와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상대방의 헌신만을 바라는 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무작정 헌신하려 하는 것도 의존적인 연애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와 여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등함이 필요합니다. 내 진심을 일방적으로 퍼붓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연애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연애 상대는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단단한 자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나를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들과 그 이유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면의 목소리만으로는 나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을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사색해보면 나도 모르던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실망과 원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억지로 쓰는 가면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만 하겠다고 우겨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정중한 진실로서 타인을 대한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이 '흑역사'의 팔만대장경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이론은 이론이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찌됐어요, 그게 인간인 것을. 빠르거나 늦거나 다시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의 아픔이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최태섭 문화평론가, <잉여사회> 저자

결혼의 문화사

결혼식이 뭐길래

한동안 특급호텔에서 하는 초호화 결혼식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소박한 공간에서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소규모로 식을 치르는 '스몰 웨딩' 붐이 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千篇일률적인 결혼식에서 벗어나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려는 이들은 수중 결혼식이나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등 이색적인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기내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1958년 기내 결혼식.



한국만의 결혼식 풍경

예전에는 사모관대 차림의 신랑이 신부 집에서 머리에 족두리를 얹은 신부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절을 올리며 치르는 전통혼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큰 식당을 빌려 치르는 서양식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서울 종로에 전문 **예식장**이 등장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며 강당 같은 공간에 의자를 놓고 마그네슘을 ‘핑’ 하고 터뜨려 사진을 찍는 예식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때부터 형편껏 내던 부조도 현금을 봉투에 담아 주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축의금을 내면 찹쌀떡이나 케이크 등을 답례로 줬고, 이를 더 많이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호텔 결혼식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 법은 1999년 폐지되었습니다.

1965년 한 신문에 “예식장이 기업화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에 순수 예식장은 한 곳도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집 정원이나 교회, 클럽 등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예식장 사용료는 3,000~5,000원이었는데, 사진 촬영비와 장갑 비용을 따로 받아 총비용은 1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결혼했어요

〈사진〉은 1958년 7월 3일 국내에서 처음 열린 기내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날 결혼식은 국내 최초의 민간 항공사인 대한국민항공사(KNA)의 서울~부산 정기항공기 DC-4 기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뉴스 171호는 ‘공중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전하며 신랑과 신부를 “우렁차게 들리는 프로펠러의

폭음을 웨딩마치로 삼아 끝없이 푸른 창공을 동경하며 백년가약을 맺은 한 쌍의 원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날 신문에 이 결혼식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공중에서 화촉을 밝힌다는 극적이면서도 드문 이야기”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기사에는 “푸른 창공을 끝없는 행복의 지표로 삼겠다는 이 ‘하늘의 부부’의 신랑은 현재 육군 공병대 소속 중위다. 항공사 사장의 주례로 가족 3명과 낯선 손님(일반 승객)을 모신 가운데 겸손하게 백년가약을 맺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 항공사 사장은 신랑, 신부를 위해 여의도비행장까지 전용차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우연히 하객이 된 일반 승객에게는 케이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날 결혼한 두 사람은 피로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허례에서 벗어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내 결혼식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 수중 결혼식,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등 이채로운 결혼식을 하는 커플들이 간혹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기내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창문에 천으로 된 커튼이 설치돼 있고, 수하물 보관함에 덮개가 없습니다. 또 기내 통로도 두 사람이 엇갈려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1949년 설립된 KNA는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1962년 정부로부터 정기운송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발기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한 이 회사는 6·25전쟁 때 부산에서 쌍발기 3대를 추가했고, 1953년에는 정부에서 100만 달러 융자를 받아 기내 결혼식이 열린 4발기 DC-4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한미항공협정 체결 후 서울~시애틀, 서울~홍콩 등 국제선도 개척했지만 1958년 쌍발기 창랑호가 납북되면서 사운이 기울었고, 경쟁사 ‘에어 코리아’와의 출혈 경쟁으로 운영난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의 오금동 지하 연습실

어쨌거나, 청춘이었기에

록 뮤지션,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활동했던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는 20대의 초중반을 유목민처럼 생활했다. 1년이 멀다 하고 옮겨 다녔던 수많은 동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지하 연습실에서 생활하며 음악을 만들었던 오금동이다.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젊음이었다.



20대 초중반 시절의 원종우 대표와 그 시절 만든 곡들이 담긴 ‘배드 테이스트’ 앨범.



작은 집들과 구멍가게들이 사라진 2004년 송파구 오금동 일대 아파트타운. 멀리 남한산성 아래 마천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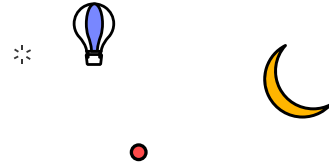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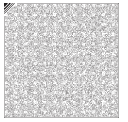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돌도 안 되어 부산으로 이사했다. 서울로 ‘돌아온’ 것은 근 20년이 지나 대학에 입학하면서다. 낯설지만 늘 동경했던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생활하며, 동시에 밴드를 하고 글을 쓰면서 지역을 돌아다녔다. 20대 초중반의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외대 앞, 상계동, 여의도, 종암동, 오금동, 포이동 등지를 배회했으니 돌아다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각각의 동네에는 각각의 개인적인 키워드가 남아 있다. 처음 부모님을 떠나 살았던 외대 앞 옥탑방과 관련해서는 다른 복잡한 기억보다 단돈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작은 고풍집이 남아 있다. 상계동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천둥소리를 내던 화물열차, 여의도에는 어울리지 않게 신식 건물 안에 살던 쥐들, 이런 식이다.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어디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1년 남짓 살았던 오금동의 지하실이다.

한겨울의 화장실 전쟁

송파구니 이른바 강남에 속하지만 90년대 초반의 오금동은 강남은커녕 시골의 작은 읍내 같은 곳이었다.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좁은 길들, 그리고 양쪽으로 늘어선 작은 집들과 구멍가게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의 화려함과 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동네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단연 허름했던 그 단칸 지하실. 지금이라면



그런 곳에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당시에도 터무니없이 싼 축이었다. 그런 곳에 산 이유는 밴드 연습 때문이다. 굳이 집과 연습실을 가르느니 동료 한 명과 함께 살면서 돈을 아끼고 음악을 생활화하지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난방이 없고 온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점이다. 바닥은 습기가 찬 것을 넘어 물이 흥건할 정도라, 방산시장에 가서 두꺼운 비닐을 잔뜩 사와 바닥을 덮은 후 그 위에 다시 싸구려 카펫을 깔았다. 그러고도 물론 전기요와 전기난로가 필수였으니 과연 집세가 싼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곤란했던 건 실내와 연결된 화장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을 올라와 셔터를 올리고 골목으로 나가 1층의 찻집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했는데, 전체 거리가 50m는 족히 됐다. 여름이나 낮에는 귀찮을 뿐 별 문제가 아니지만, 겨울밤에는 화장실 한 번 가려면 혹독한 추위를 마주해야 함은 물론, 화장실이라는 곳 자체도 도무지 훌륭하지 못해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고문에 가까웠다. 젊었으니 버텼지 지금 같으면 턱도 없다.

열악했지만 특별했던 공간

그런 열악한 곳이었지만 왜 지금껏 기억에 남아 있을까. 단지 열악했기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친구는커녕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 올라와서, 좌고우면(左顧右盼) 끝에 처음으로 만든 밴드와 연

습실은 내게 무척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꿈을 키우며 작곡과 연습에 매진했고 실제로 이후 ‘배드 테이스트’라는 밴드명으로 발매되었던 곡의 상당수가 거기서 태어났다. 청천벽력과도 같던 커트 코베인의 자살 소식을 접한 곳도 그곳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많이 피웠으며 건강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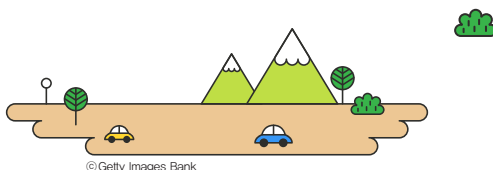
하지만 아무래도 이 장소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꿈이었다. 환경이 그러니 어떤 악몽을 꾀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특히 어느 여름날 새벽에 꿈 조선시대 무당의 꿈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장바닥에서 흰 소복을 입고 춤을 추며 등장해 분칠을 한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을 내게 바짝 들이댄 것도 모자라, 가위에 눌린 내 귀에 떠나지 말라며 속삭이기까지 하던 그 무당. 그 지하실에서 이 꿈을 한 달 간격으로, 마지막 속삭임까지 포함해 2번 꿔다. 너무 이상하고 또 생생했기에 정말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과학을 말하고 사는 내가 그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선 안 되지 싶다.

그곳을 떠난 지 이제 25년쯤 된 것 같다. 한 해 정도 살다가 조금 넓고 나은 지하 연습실로 옮겼고, 거기에는 또 거기대로의 드라마가 있지만 생각하자. 아직도 이 귀신 들린 오금동 지하실이 남아 있을 리는 없다. 아마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고도 족히 20년은 지났으리라. 내 생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한 시절을 보낸 그곳이 지금은 흔적도 없다. 자전거를 타고 마천동 친구 집을 오가던 24살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은 정말 빨리 변한다. 내가 지난 30년간 살아온 이 서울을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이유가 어찌면 그것인지도.

글·사진 원종우 필명 파토. 무엇으로도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록 뮤지션,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 작가 등의 이름을 붙여가며 살았다. 현재는 ‘과학과 사람들’ 대표로, 누적 3,500만 다운로드의 〈과학하고 앉아있네〉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다.

사진 제공 한겨레



사라진 라이브클럽들, 그리고 ‘경록절’

다시 홍대

차를 타고 가다 서교동사거리에서 내렸다. 상암마당사거리 쪽으로 걷다가 ‘왓에버’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벨로주’라는 간판을 내건 곳이었다. 2008년 잘나가던 포털 회사를 그만두고 홍대 앞에 음악 카페를 차린 박정용 씨. 그가 몇 차례 이사 끝에 어렵게 자리 잡은 공연장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인근 망원동으로 옮겨간 것이다. 왓에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금요일 밤이었지만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많던 라이브클럽은 어디로 갔을까

한때 홍대 앞에는 참 많은 라이브클럽들이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홍대 앞에서 인디신이 태동한 것도 라이브클럽들 덕분이었다. 발전소, 드럭, 클럽 뽕 등으로 음악을 하는 밴드와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펑크록의 악동이자 홍대 앞이 낳은 전국구 스타 크라이넛도 드럭이 아니었다면 탄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상당수의 라이브클럽들이 사라지고 없다. 인디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가 10년째 운영해온 라이브클럽 타도 2016년 10월 문을 닫았다. 십센치, 장재인 등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발굴한 인큐베이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문 닫기 직전 몇 년간 클럽 타의 임대료는 월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뛰었다.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었다.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는 홍대 앞 라이브클럽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슈퍼스타K〉처럼 한 방에 뜰 수 있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찾아갔다.

라이브클럽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댄스클럽과 술집들이 생겨났다. 음악과 문화의 거리에서 거대한 유흥가로 변신한 이곳은 이제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 등 주변 지역으로까지 몸피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2월 9일 홍대 앞에 갔다. 몇 달 만인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간만의 방문이었다. 난 홍대 앞을 좋아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공연을 보고 있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발길이 뜸해지더니 요즘엔 아예 가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던 그 홍대 앞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1 경록절 포스터. (한경록 제공)
2 경록절 파티 모습.

홍대 3대 명절, ‘경록절’

2012년 5월 상수동과 당인동에서 열린 ‘동네 한바퀴’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1930년 준공된 당인리 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이 더딘 동네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비교적 낮은 임대료 덕에 홍대 앞에서 밀려난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이와 함께 개성 있는 카페, 식당, 갤러리 등도 하나둘 늘어갔다. 토박이 주민들과 예술가, 문화공간의 공존을 보며 ‘홍대 앞보다 더 홍대 앞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당인리 발전소 앞 동네는 지금도 여전할까?’ 왓에버를 지나쳐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얼마 가지 않아 목적지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무브홀, 크리스마スイ브, 핼러윈데이와 함께 '홍대 3대 명절'로 불리는 '경록절' 파티가 열리는 곳이다. 경록절은 크라잉넛의 리더 한경록의 생일잔치에서 비롯됐다. "2005년 제대하고 홍대 앞으로 돌아오니 인디밴드 후배들이 많아 졌더라고요. 생일날 내가 쏘 테니 와서 맘껏 먹어라, 하고 치킨집을 빌려서 잔치를 한 게 매년 이어지면서 축제처럼 돼버렸죠."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자 치킨집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3년 전부터 큰 공연장인 무브홀로 장소를 옮겼다. 다행히 술을 협찬해주겠다는 곳이 나타났다. 올해는 준비된 맥주만 해도 65만cc. 위스키는 물론 고량주 스폰서까지 들어왔다. 경록절 파티에선 많은 음악인들의 즉흥 공연이 펼쳐진다. 손님으로 왔다가 흥이 오르면 무대에 올라가는 식이다. 라인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연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 파티 호스트인 한경록이 순서를 정해주는 식이다. 이날 무대에는 각스, 크라잉넛, 호랑이아들들, 캡틴락(한경록) 솔로 밴드, 레이지본, 오리엔탈 쇼커스, 타이거디스코, 더더, 모브닝, 유발이(강유현), 타틀즈 등이 올랐다. 웬만한 록 페스티벌보다 화려한 라인업이다. 드러

머 남궁연과 와이낫의 황현우 등이 즉흥으로 밴드를 이뤄 잼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이런 즉흥 연주는 경록절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이전 어느 경록절 때는 음악계 대선배인 '작은 거인' 김수철이 무대에 올라 기타를 잡기도 했다.

파티에서 오랜만에 문화기획자 공윤영 씨를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잔다리 준비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매년 가을 홍대 앞 일대에서 펼쳐지는 잔다리 페스타는 국내 인디밴드는 물론 외국 음악인들도 참여하는 음악 축제다. 2012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에는 26개 나라 139팀이 참여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가 홍대 앞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망원동으로 옮겨간 벨로주가 기존 왓에버를 인수해 다시 벨로주로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3월 재오픈해 벨로주 10주년 공연을 한다고 했다. 홍대 앞을 다시 홍대 앞답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 다행이다. 이젠 홍대 앞에 자주 가게 될 것 같다.

글 · 사진 서정민 씨네플레이 대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봄처럼 사랑스러운 오페라

봄이 되면 늘 떠오르는 오페라가 있다. 평생 70편이라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쓴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오페라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유독 <사랑의 묘약>이 떠오르는 이유는 마치 봄바람처럼 살랑거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역대급’ 코믹 아리아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묘약>은 예부터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전원극의 얼굴을 띠고 있다. 즉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여기서는 신분이 낮은 농촌 총각 ‘네모리노’가 지주계급의 아가씨 ‘아디나’를 짝사랑한다.)가 주인공이고 여기에 이웃마을에서 제복을 입은 멋진 군인 ‘벨코레’(늙름한 육체미를 갖춘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도 재미있다.)가 등장해 네모리노의 사랑을 방해한다.

음악은 싱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모리노의 첫 번째 아리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Quanto e bella, quanto e cara)에서부터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디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부르는 노래다. 네모리노도 글을 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만 쉬며 방법을 찾지 못하던 네모리노 앞에 강력한 방해자가 나타난다. 바로 부대를 이끌고 온 늙름한 벨코레 상사인데, 그는 아디나에게 꽃을 바치면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한다. 아디나도 싫지 않은 기색이다. 바로 이때, 마을에 ‘둘카마라’ 박사가 요란하게 등장한다. 옛날 우리 장터에도 자주 나타났던 엉터리 약장수다. 둘카마라 박사는 두통, 치통, 요통, 당뇨병, 부인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름살도 펴준다는 만병통치약을 판다. 이 장면에서 둘카마라가 부르는 노래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극적 오페라)의 바소 부포(basso buffo: 희극적 오페라의 베이스 역) 중에서도 ‘역대급’ 코믹 아리아다. 보통 베이스는 진지한 오페라에서는 매우 진중한 역





할, 즉 왕이나 성직자, 근엄한 아버지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오페라 부파에서는 느릿느릿한 베이스도 재빠르고 경쾌하게, 속사포처럼(마치 요즘의 랩처럼) 노래를 불러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폭소를 터트리게 한다. 바로 그런 재미를 주는 역할이 돌카마라 박사다. 이 모습을 본 네모리노는 돌카마라에게 아디나가 읽어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내가 마시면 상대방이 날 사랑하게 되는 묘약’이 있다고 묻는다. 돌카마라는 “바로 내가 발명한 약”이라면서 네모리노에게 약을 팔고 네모리노는 이 묘약을 마신 후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 사실 그 약은 보르도 레드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부르는 돌카마라 박사와 네모리노의 2중창은 빠르고 리드미컬하며 대사도 재미있어서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이룬다. 속사포처럼 포르르 구르는 이탈리아어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 무척이나 즐겁다.

도니제티의 새로운 시도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는 후반부에 나온다. 도니제티는 이 오페라에서 놀라운 실험을 한다. 코믹 오페라 속에 구슬픈 테너의 아리아를 집어넣은 것이다. 초연을 준비하며 도니제티가 이 곡을 썼을 때, 극장장과 대본 작가 등 주위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니제티는 이 곡을 넣어야만 오페라가 성공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밀어붙였고 결국 이 곡은 역대 테너 아리아 중 가장 개성 있고 독특한 곡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바로 〈남 몰래 흘리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이다. 돌카마라

박사에게서 산 사랑의 묘약을 마셨는데도 아디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자 네모리노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연적인 벨코레의 부대에 입대한다. 그리고 입대해 받은 돈으로 또 묘약을 사서 마신다.

네모리노가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군대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디나는 네모리노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린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본 네모리노도 드디어 아디나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숙연해한다. 정말로 원하던 것을 얻으면 뭘 듯이 기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모리노처럼 숙연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곡은 〈라보엠〉의 〈그대의 찬 손〉이나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같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터트리는 일반적인 테너 아리아들과는 달리,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오는 하강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우울한 바순 사운드와 테너의 목소리가 함께하는데 슬픈 곡이 아니라 기쁜 곡이라니! 결국 이 곡은 언제나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로 앙코르를 요청하는 명작이 되었다. 도니제티의 역설적이면서도 시대를 앞선 시도가 〈사랑의 묘약〉을 대성공으로 이끈 셈이다. 이 봄,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권한다.

글 **장일범**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과 MBC 〈TV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정수지**





1



2



3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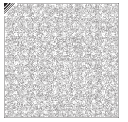
체인지 메이커들의 베이스캠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성수동은 값싸고 간편한 붉은 벽돌로 지은 점포형 공장들이 모여 작은 공업지대를 이루었다. 최근 성동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숲길 인근의 붉은 벽돌 밀집 지역을 '붉은 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붉은 벽돌이 성수동의 정체성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지색 벽돌로 지은 '헤이그라운드'가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 1 붉은 벽돌로 지어진 창고 옆으로 베이지색 벽돌의 헤이그라운드가 보인다.
- 2 6층의 계단형 라운지. 옆 대회의실의 개폐형 도어를 열면 공간을 확장하여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3 자연 채광을 위해 벽돌을 '비워 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 4 8층의 야외 테라스와 스카이라운지. 대규모 행사와 함께 입주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4



모던한 분위기, 유연한 내부 공간

헤이그라운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1~2층의 낮은 주택들 그리고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모여 골목을 형성하고 있다. 헤이그라운드는 소박할 정도로 예전 그대로인 건물들이 들어찬 동네 속에서 검은색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창문들을 통해 단정함과 질서를 부여한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창고 옆에 자리한 베이지색 벽돌의 헤이그라운드는 모던한 사각형 매스로,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피가 설계했다. 내부 공간의 바닥은 컬러 에폭시로 마감해 '체인지 메이커'들을 위한 공동 오피스 공간으로서 유연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강연과 컨퍼런스를 통하여 체인지 메이킹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하 1층은 다목적 홀과 세미나 룸 등으로 계획되었고, 1층에는 헤이그라운드 입주자뿐 아니라 외부인도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오픈된 라운지와 함께 카페, 헬스클럽, 편의점 등이 자리한다. 2~7층은 사생활이 보장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2층부터 5층까지는 담백한 분위기의 가구들로 중대형 독립 오피스를 꾸몄다. 소셜 벤처나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오피스 작업공간으로 10인부터 10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6층과 7층은 3·4·6인 단위의 소형 독립 오피스, 1인 단위로 운영되는 코워킹 데스크 존으로 이루어진 사무공간과 30인 대회의실, 여성 라운지, 키친, 촬영 스튜디오 등의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스트리얼풍 가구로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8층은 스카이라운지로 회의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된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개폐형 도어를 열고 옥상 테라스와 연결하여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8층 전체는 도심 속 리조트 분위기의 공용공간으로 입주자들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안락하면서도 이동성이 좋은 가구를 배치했다.

순환하는 동선 속 우연한 마주침

헤이그라운드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기획 및 운영하는 코워킹 커뮤니티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공유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현재 카우앤독, 위워크 등의 공유 사무실이 스타트업들의 베이스캠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헤이그라운드(Heyground)는 '우연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hey)하면 좋겠다'의 '헤이'와 '우리가 든든한 대지(ground)가 될 테니까'의 '그라운

드'를 합친 말이다. 헤이그라운드는 다른 공유 사무실과 다르게 체인지 메이커들을 위한 환경에 관심을 기울였다. 체인지 메이커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 이들과 함께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보노(pro bono: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 소셜 벤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이다.

루트임팩트는 사회를 바꾸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경제적 기반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며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헤이그라운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그라운드빌딩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준비했다. 기획 단계부터 실제 일하고 생활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공간 구성을 위해 의사소통을 하며 입주자들의 생각을 공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아이디어 소통 과정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했다.

헤이그라운드의 공간적 특징은 2층과 3층, 4층과 5층 등을 오픈하여 개방감 있는 수직적인 라운지 공간과 함께 순환하는 동선 체계를 계획한 점이다. 서로 간의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 자연스러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2층과 4층의 멤버 전용 라운지에서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6층의 계단형 라운지에서는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했다. 복층의 라운지 공간 외벽은 벽 일부의 벽돌 간격을 조금씩 띄워 쌓는 '비워 쌓기' 방식을 사용하여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그물처럼 만든 벽은 답답한 느낌을 덜어주고 외부의 시선과 빛을 적당히 걸러주기 때문에 연대와 교류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헤이그라운드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공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각 공간을 세심히 구성했다. 헤이그라운드가 만든 체인지 메이커들의 커뮤니티가 성수동을 터전으로 더욱 확대되고, 성수동에 있는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 성수동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글·사진 **이훈길**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가 있다.

연상호 감독의 <엽력>

초능력으로도 못 이기는 오랫한 재난, 한국

이 영화, 좀 어정쩡하다. 슈퍼 히어로물의 짜릿함도 없다. 어긋난 부녀 사이의 감동적인 화해도 없고, 공분을 자아낼 만한 한 방도 없다. 그럼에도 <엽력>은 2018년,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를 거듭해서 묻는다. 연상호 감독은 희망을 믿어보고 싶은 누군가가 맞잡은 것이 골 깊은 '불신'이며 '패배감'이라는 사실을 되낸다. 늘 공정사회를 꿈꾸지만 정의 앞에서 늘 주춤거리고야 마는, 부당함에 맞선 소수는 늘 싸우지만 그 결말은 늘 다수의 승리였고,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 혹은 정의는 어정쩡하게 혹은 어물쩡 넘어왔다. 그 순간들을 되짚어 <엽력>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한국적이다. 아니, 오롯이 한국이다. 그래서 곱씹어 쓴맛을 남긴다.



*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없다

<부산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장르영화의 뻔한 속성과 신파적 요소를 통해 상업영화의 외피를 가졌던 것에 비해, 블록버스터를 벗겨낸 <엽력>의 민낯은 거칠고 예쁘지 않다. 우연히 초능력을 얻은 아버 '석현'(류승룡)이 제구실을 하려나 기대해보지만, 그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연상호 감독은 흥포한 공권력 앞에서, 초능력이라도 있어야 겨우 맞설 수 있다는 현실을 대놓고 관망하고 비웃는다. 승리도, 화해도, 사죄도 없다. 와르르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집을 잃은 자의 몫이다.

어쩔 수 없이 용산을 연상시키는 장면에서도 공권력에 맞선 서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가닿을 곳 없이 길을 잃는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소동 앞에서 싸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부유물처럼 둥둥 떠 있다. 계층적 문제는 여전하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를 짓밟아온 역사는 되풀이된다. <엽력> 속 인물들 앞에 놓인, 혹은 연상호 감독이 바라보는 한국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득권, 흙수저 소시민은 초능력을 얻어도 결국 영웅이 되지 못하는, 근원적 족쇄는 끊을 수가 없다.

연상호 감독은 아주 극단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지옥 같은 속살을 칼날처럼 해집으면서 질주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2011년 <돼지의 왕>, 2012년 <창>, 2013년 <사이비> 연작



을 통해 학교 폭력, 군대 폭력, 그리고 종교 문제를 그렸다. 뚜렷한 선인도 악인도 없이 모두가 비겁하고 모두 조금씩 나쁘다. 그는 광기 어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일종의 지옥도를 그리는 데 익숙하다.

〈염력〉은 연상호 감독의 앞선 애니메이션과 궤를 같이한다. 장르 영화의 관습에서 매끈하게 벗어나 있진 않지만, 슈퍼 히어로의 외피를 입은 영화 안에 오늘의 한국을 녹여내는 숨씨는 여전하다. 삶의 터전을 허망하게 잃은 철거민들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는 근원적 죄의식을 가진다. 그리고 알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뤄 살아가지만 그 끝이 희망이진 않을 것이다. 영화 속 ‘루미’(심은경)가 지키고 싶은 것은 그냥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이어줄 치킨 집 하나다. 어느 날 재개발 앞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삶의 터전을 둘러보면, 연민보다는 슬픔이라는 공감대의 띠가 둘러쳐진다. 거기에 공권력이 국민을 절대 지켜주는 법이 없는 현재를 빚대 녹였다.

영화가 끝나는 순간, 공포는 시작된다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연상호 감독의 〈염력〉에 등장하는 ‘홍상무’(정유미)의 대사다. 세상 해맑은 표정으로 남의 손을 빌려 때리고, 부수고, 협박하는 그 순

간에도 말간 미소를 잃지 않는 홍상무. 형식적으로 고개를 조아리지만, 단 한 번도 진짜 별을 받은 적이 없는 맑은 표정의 악당들과 홍상무의 천진한 오만함이 겹쳐 보인다. 우리는 홍상무의 표정을 한 그들이 말간 미소를 지으며 교도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미 익숙할 만큼 자주 보아왔다.

영화 속에서 초능력은 아비에게 주어졌지만, 영화 속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홍상무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의 힘을 비틀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별을 받지 않는다. 애초에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 뒤늦게 초능력을 가져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계속 변질되지만 할 뿐, 한 번도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오늘도 안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힘없이 겹친다. 그런 점에서 〈염력〉은 초능력으로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의 삶과 한국이라는 사회적 지형도에 대한 씁쓸한 코미디 그 자체가 된다. 비로소 소름 돋는 진짜 공포는 그 자각과 함께 영화가 끝나는 순간, 시작된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토박토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 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18 3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는 고연옥 작가 · 김정 연출의 〈처의 감각〉으로 시즌 프로그램의 문을 연다. 〈그림,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손 없는 색시〉,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 등 총 8편의 작품을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점검하는 작가들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개별 문의
문의 02-758-215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5

- 서교예술실험센터 웨어 프로젝트 '실험실' 1차 실험 시작(∼3.24)
- 전시 〈겨울나기〉(∼3.5)
- 연극 〈경환이〉(∼3.5)
-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공모 당선작가전 : ON〉(∼3.5)

6

-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The Movie Night〉
- 연극 〈풍납동 가는 길〉(∼3.11)
- 2018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재개관 페스타(∼4.15)
- 뮤지컬 〈명성황후〉(∼4.15)

7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연극 〈동경 송대리〉(∼3.11)
- 2018 1번출구연극제(∼4.22)

12

13

- 〈서치라이트(Searchwright)〉(∼3.16, 20∼23)
- 헤이미쉬 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늑한 오늘〉
-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KCO 제160회 정기연주회〉
- 뮤지컬 〈젊음의 행진〉(∼5.27)

14

- 한국 오페라 70주년 기념음악회
- 2018 서울문화문국악당 신진예술가&신규작품 발굴 프로젝트 〈新통방통〉(∼4.21)

19

20

- 클래식 〈파가니니의 불꽃〉
-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4.1)

21

- 3월 발레갈라 〈The Masterpiece〉
- 국립발레단 〈자젤〉(∼3.25)

26

- 서울뮤직소사이어티 제2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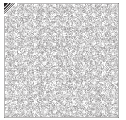
27

- 제13회 첼트로 무자가 정기연주회
- NT Live 〈예르마〉(∼3.30)
-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4.15)

28



- 서교예술실험센터 웨어 프로젝트 '실험실' 2차 실험 시작(∼4.15)
- 전시 〈앨리스 : 인투더래빗홀〉(∼3.28)



THU

1

- 삼일절 기념 특별행사
-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시
〈피에라 시민청〉(∼6.30)
- GAC 목요예술무대
〈동춘서커스: 초인의 비상〉
- 연극 〈안락의 정원〉(∼3.11)
- 뮤지컬 〈존 도우〉(∼4.22)
- 연극 〈에쿠우스〉(∼4.29)

FRI

2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아카펠라로 읽는 문학명작
〈그 여자네 집〉(∼3.4)
- 유니버설발레단 2018 스페셜 그랜드
갈라(∼3.4)
- 〈2018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3.9)

SAT

3

- 오페라 인 시네마 〈파리 오페라 발레
갈라쇼-호두까기 인형〉
- 〈WE콘서트, 음악으로 하나되는 우리〉
- 역사인물체험연극
〈소년 이순신, 무장을 꿈꾸다〉(∼4.1)

SUN

4

- 연극 〈노란 달〉(∼3.4)
- 〈와일드라이프 사진&체험전〉(∼3.4)
-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3.4)
- 연극 〈ART〉(∼3.4)
- 연극 〈The Helmet(더 헬멧)〉
-Room's Vol.1(∼3.4)

8

- 제5회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The Felix Trio - 시대의 소음
Shostakovich〉

9

- 〈제8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3.11)
- 오페라 〈1953〉(∼3.10)
- 오페라 〈왕심리 러브 스퀘드〉(∼3.11)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4.1)
- 뮤지컬 〈더 픽션〉(∼4.21)

10

- 한마음살림장
- 반포심산아트를 재개관 기념공연
유니버설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여행〉
- 전시 〈개:화만발(畫滿發)〉(∼3.10)
- 서울시향 2018 올해의 음악가
이안 보스트리지(∼3.11)
- 연극 〈I Go, Amigo〉(∼3.18)
- 연극 〈트레인스포팅〉(∼5.6)

11

- 연극 〈3월의 눈〉(∼3.11)
-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3.11)
- 뮤지컬 〈아이러브유〉(∼3.11)
- 뮤지컬 〈찰리찰리〉(∼3.11)
- 전시 〈2017 서울 포커스 [25.7]〉(∼3.11)
- 〈2018 제10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展〉(∼3.21)

15

- 서울문화재단 창립기념일
-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Next Step)〉(∼3.17)
- 2018 정동극장 기획공연
〈적벽〉(∼4.15)

16

- 음악극 〈임대인생〉(∼3.16)
- 뮤지컬 〈삼총사〉(∼5.27)

17

- 바스락콘서트
- 평창문화올림픽 계기
한-영 국제공동제작
〈굿모닝 예브리바디〉(∼3.18)
- 영상 노래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4.1)
- 역사 체험 뮤지컬
〈소년 이순신〉(∼5.6)

18

-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 연극 〈가자(Aubergine)〉(∼3.18)
- 전시 〈다빈치 얼라이브 : 천재의
공간〉(∼3.18)
-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3.18)
- SeMA Collection
〈올림픽 기념전 : 화합과 전진〉(∼3.18)

22

- 〈댄싱 발레리노〉(∼3.23)
- 연극 〈아홉소녀들〉(∼4.8)

23

-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7.1)

24

- 한마음살림장
-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 플라멩코 후엔산타 라 모네타
〈디비노 아모르 휴마노〉(∼3.25)

25

- 아르츠 콘서트 〈바흐, 켈블란트를 만나다〉
- 2018 김명숙 늘휘무용단 봄신작
〈IN PRISM〉
- 전시 〈두 번째 풍경〉(∼3.25)
- 캐주얼오페라 〈라트라비아타〉(∼3.25)
- 〈자연을 디자인하다, 루이지 콜라니
특별전〉(∼3.25)
- 연극 〈쥐뿔〉(∼3.25)

29

- 스프링 콘서트
〈장사익이 부르는 봄소리〉
- 한국서예사특별전 34
〈명재 윤중〉(∼5.20)

30

- 뮤지컬 〈레드북〉(∼3.30)

31

- 토요일은청이좋아
- 창작 오페라 〈몽월(夢月)〉 갈라 콘서트
- 꾸러기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 리처드 용재 오닐 〈DUO〉
- 2018 교향악축제 전야제
- 전시 〈어둠을 밝힌 우리 등잔〉(∼3.31)
- NT Live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4.1)

01 THU



뮤지컬 <존 도우>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 <존 도우를 찾아서>가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1930년, 대공황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거짓말이 낡은 가짜 영웅 '존 도우'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신념과 여정을 그렸다.

일시 3월 1일(목)~4월 2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7만 7천 원,
 OP석·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02-588-7708

02 FRI



아카펠라로 읽는 문학명작
 <그 여자네 집>

문학 명작을 아카펠라 음악과 낭독을 통해 실험적으로 해석한 아카펠라 입체낭독 공연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감동적인 성찰이 서정적인 언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원작소설과 판소리 <사랑가>, 민요 <옹헤야>, 동요 <고향의 봄> 등 20여 곡의 아카펠라 음악이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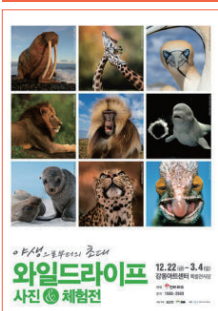
일시 3월 2일(금)~4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4시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3만 원

문의 02-2204-7563

04 SUN



<와일드라이프 사진&체험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가들이 촬영한 작품 100여 점과 대형화면을 통해 세계의 야생동물들과 교감하는 증강현실 체험전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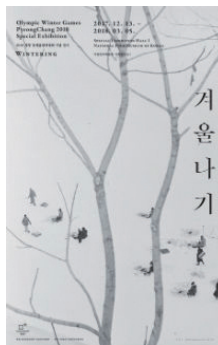
일시 ~3월 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강동아트센터 특별전시장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학생(초·중·고) 1만 원, 유아 8천 원

문의 1688-2689

05 MON



전시 <겨울나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전통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겨울을 '출처만 따듯한 감성'으로 보여주는 자리이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온돌방, 솥, 할머니의 옛 이야기와 같은 정서가 있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겨울을 보내는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일시 ~3월 5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4-3114

06 TUE



연극 <풍납동 가는 길>

과거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정을 이혼으로 몰고 간 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가장과 오랜 시간 아버지의 옛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딸의 이야기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일시 3월 6일(화)~11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4시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관람료 자유석 2만 원

문의 010-8999-2553



뮤지컬 <명성황후>

1995년 초연 이래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19세기 말 격변의 시대에 허약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정면으로 맞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삶을 그린다.

일시 3월 6일(화)~4월 1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02-2250-5941

09 FRI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한국과 일본에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연극 행사로, 양국 연극계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일본의 최신 연극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관객들에게 희곡을 보다 깊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낭독공연의 매력을 전한다.

- 일시** 3월 9일(금)~11일(일)
- 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
- 9일 〈인사이드 - 헤지2〉(INSIDER - Hedge2) 최진아 연출
 - 10일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김정 연출
 - 10일 오후 5시 30분 심포지엄 〈사실과 드라마〉
 - 11일 〈저편의 영원〉 강량원 연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뮤지컬 〈더 픽션〉

1932년 미국 뉴욕, 소설과 현실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다. 작가 그레이 헛트의 연재소설 〈그림자 없는 남자〉속 주인공 블랙이 현실에 등장한 것이다. 블랙은 범죄자를 살해하는 살인마다. 그의 소설 속 범죄행이 현실에 그대로 재현되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블랙과 작품에 열광한다. 그러던 중 작가의 마지막 소설이 발표되고 그 소설의 결말로 작가가 죽음을 맞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 일시** 3월 9일(금)~4월 21일(토)
- 월·수~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5시·8시,
일 오후 2시·5시(화 공연 없음)

장소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문의 02-588-7708

10 SAT



전시 〈개:화만발(畫滿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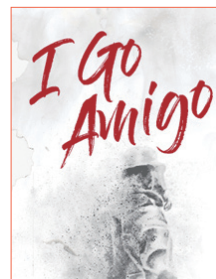
미술에 있어서 개의 도상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삶과 정신을 환유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30인의 작가들이 선사하는 개의 도상이 2018년 오늘 어떻게 읽혀지고 사유되는지 개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시 ~3월 10일(토)

장소 갤러리마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7-7600



연극 〈I Go, Amigo〉

연극 〈페스트〉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와 연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송곳'이 연극 〈I Go, Amigo〉를 선보인다. 불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뜨거운 진심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3월 10일(토)~18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일 오후 4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동양예술극장 3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4457-6626

11 SUN



전시 〈2017 서울 포커스 [25.7]〉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자리 잡은 상계 신시가지의 준공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전시로, 동시대 한국문화와 미술에 깊게 자리 잡은 아파트의 조형적, 서사적 위치를 가능해 본다.

일시 ~3월 11일(일)(매주 월 휴관)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5268



《서치라이트(Searchwright)》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희곡, 창작자의 메모장 속에 잠들어 있는 미완의 텍스트, 극단의 회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디어 등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 중 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을 미리 공유해보는 '아직·미정·미확정의 무대'이다. 올해는 낭독공연, 리서치, 쇼케이스 등 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3월 13일(화)~16일(금),
20일(화)~23일(금) 평일 오후 8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뮤지컬 《젊음의 행진》

80~90년대 히트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만화 《영심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대사, 코믹한 무대 연출로 추억여행을 선사한다.

일시 3월 13일(화)~5월 27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1만 원,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문의 1666-8662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

정소연, 김병조, 이재화 3명의 안무가가 선보이는 각기 다른 개성의 세 작품이 한 무대에 펼쳐진다. 안무가들은 긴 시간 체화한 한국무용 무용수로서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전통을 분석하고 해체하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우리 춤'을 시도한다.

일시 3월 15일(목)~17일(토)
목·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2018 정동극장 기획공연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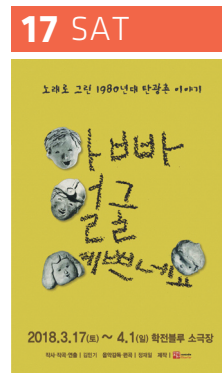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적벽가》가 현대무용과 만났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안무, 폭포처럼 쏟아지는 판소리 합창에 라이브 밴드의 연주가 더해져 에너지를 뿜어낸다.

일시 3월 15일(목)~4월 15일(일)
화~토 오후 8시, 일 오후 3시

장소 정동극장 서울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751-1500



영상 노래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

1980년대 탄광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연출가 김민기가 젊은 시절 탄광촌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와 실제 탄광촌 아이들의 일기와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탄광촌의 삶과 풍경,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애를 영상을 활용해 진한 감동으로 전한다.

일시 3월 17일(토)~4월 1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1시·4시

장소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63-8233



역사 체험 뮤지컬 《소년 이순신》

초등학교 4학년 이순신은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다. 이순신 장군과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정반대인 순신이는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신 장군 박물관 견학을 가게 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그린 《심경도》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일시 3월 17일(토)~5월 6일(일)
토·일·공휴일 오후 2시 공연
(월 공연 없음)

장소 경복궁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5천 원

문의 02-735-0506

18 SUN



연극 <가지(Aubergine)>

평생 한없이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이별의 순간에 다가가는 아들의 하루하루가 연민과 애뜻함으로 담담하게 그려진다. '죽음'을 다루는 이 작품은 사실 삶에 대한 가슴 뭉클한 찬가이다.

일시 ~3월 18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22 THU



<댄싱 발레리노>

우리나라의 대표 발레리노 김현웅, 이현준, 윤전일, 유희웅 4인이 선보이는 발레의 모든 것. 발레의 대중화를 위한 춤 프로젝트로, 발레리노들의 춤에 대한 열정과 완벽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이 펼쳐진다.

일시 3월 22일(목)~23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2263-4680

23 FRI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적인 기획시리즈 <리컴포즈>. 이번 <리컴포즈> 공연은 국악과 서양음악을 베이스로 각각 성장한 2명의 젊은 작곡가 김보현과 니키 손이 작곡을 맡았다. 또한 새로운 시즌과 함께 위촉된 상주작곡가들의 연구 결실을 목도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시즌 강은구, 최지혜 두 작곡가와 6개월에 걸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시 3월 23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2280-4114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뱀파이어의 운명을 선택한 인간의 이야기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전개와 사랑을 얻고 싶은 인간, 죽음을 갈망하는 뱀파이어 두 남자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몰입도를 높인다. 송용진, 허규, 조형균, 송유택, 정욱진, 김찬호, 고훈정, 윤소호 등이 캐스팅됐다.

일시 3월 23일(금)~7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1577-3363

24 SAT



플라멩코 후엔산타 라 모네타

<디비노 아모르 휴마노>

후엔산타 라 모네타는 탁월한 리듬감과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플라멩코 무용수다. <디비노 아모르 휴마노> (순수한 인간애)는 천사의 불화살로 심장 이 찢리는 고통과 함께 극치의 달콤한 희열을 느끼며 육체와 신성의 황홀경을 노래한 성녀의 시를 무대 위 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일시 3월 24일(토)~25일(일)

토 오후 8시, 일 오후 5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 15만 원, R석 11만 원,

S석 7만 7천 원, A석 5만 5천 원,

B석 3만 3천 원

문의 070-4120-6411

**아르츠 콘서트****〈바흐, 렘브란트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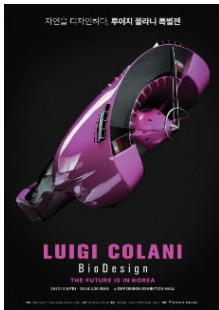
콘서트마스터 윤상인의 친숙한 해설과 다채로운 출연진들로 새롭게 선보이는 '아르츠 콘서트'. 미술과 음악의 융합 콘서트를 통해 바로크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일시 3월 25일(일) 오후 5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2-2658-3546

**〈자연을 디자인하다,
루이지 콜라니 특별전〉**

"나는 10년에서 15년을 앞서 돌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루이지 콜라니. 그가 지난 세월 동안 그려낸 수많은 드로잉과 프로토타입들이 이 말을 증명한다. 그의 작품에는 제작 연도를 유추하기 어려울 만큼 미래 지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

일시 ~3월 25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1천 원,
어린이 9천 원, 미취학 아동 6천 원

문의 1544-1555

**NT Live 〈예르마〉**

NT Live로 소개되는 〈예르마〉는 한 여인이 몇 년 동안 처절하게 좌절하며 비극에 이르는 과정을 100분으로 압축, 강렬한 극으로 담아냈다. 연출가 사이몬 스톤은 원작의 뼈대만 남긴 채, 시대적 배경을 현대 런던으로 옮겨 새롭게 각색했다. 시와 노래로 감정을 미루어 짐작하게 했던 원작과는 다르게 대사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일시 3월 27일(화)~30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

웹툰 〈신과 함께〉를 무대 언어로 구축해 큰 사랑을 받은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저승편〉이 다시 돌아온다. 삼연을 맞아 원작의 감동을 조금 더 밀도 높은 무대적 언어로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일시 3월 27일(화)~4월 1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문의 1577-3363

**꾸러기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쾌하고 밝은 곡들을 위주로 연주한다. 공연 30분 전부터 '악기놀이터'에서 전시된 악기를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다. '악기야 놀자' 금관악기 공연팀과 함께 직접 악기를 붙여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일시 3월 31일(토)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547-9851~3

**전시 〈어둠을 밝힌 우리 등잔〉**

섬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와 근대의 한국 전통 등기(燈器)들과 서양의 촛대들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전통 등잔과 촛대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시 ~3월 31일(토)

장소 섬박물관

관람료 대인 1만 원, 소인 5천 원

문의 02-396-9277



National
Theatre
Live

2018
3.27
|
4.1

일시
예르마

2018.3.27-3.30 20:00
18세 이상 관람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톤은 죽었다
2018.3.31-4.1 15:00
12세 이상 관람가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주최 | 국립극장

티켓 | 전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ticketlink.co.kr

BY EXPERIENCE HD

ARTS COUNCIL
ENGLAND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A Young Vic Production

예르마

원작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연출 사이몬 스톤

Photograph (Ellie Pijet) by Johan Persson

FROM THE OLD VIC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톤은 죽었다

원작 톰 스토파드 연출 데이비드 르보

Photograph by Helen Maybanks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김현빈 님(대전광역시 동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우리 동네 유일한 배포처 웅운도서관이요. 두 권이 남아 있길래 가까스로 한 권을 집어 들어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문화+서울]을 접어들었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소설가 한창훈의 스무 살 서울’을 읽으면서 공공롭게도 어머니가 여행 가셨을 때 딱 하루 동안 어린 저를 돌봐주었던 셋방 아가씨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단국대 박사 김진익(보산) 님이 살아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의 해학, 익살, 유머를 연구하고 저술한 애연가신데, 특히 <유머 에세이 34장>은 천 명의 지인들에게 한창적으로 뿌려졌지요. 이와 관련해 웃을 수 있는 내용도 기다려집니다. ‘웅알스’ 저리 가라예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지난 번 정기구독자 대열에서 탈락되었다고 위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복 받으실 거예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가난한 제게 딱 1년 동안만 본지를 보내줄 수 없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치밀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독자로서의 품위와 교양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하세요. ^^

2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찾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저는 웅운 도서관 배포처에서 웅운도서관요. 두 권이 남아 있길래 가까스로 한 권을 집어 들어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소설가 한창훈의 스무 살 서울”을 읽으면서 공공롭게도 어머니가 여행 가셨을 때 딱 하루 동안 어린 저를 돌봐주었던 셋방 아가씨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단국대 박사 김진익(보산) 님이 살아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의 해학, 익살, 유머를 연구하고 저술한 애연가신데, 특히 <유머 에세이 34장>은 천 명의 지인들에게 한창적으로 뿌려졌지요. 이와 관련해 웃을 수 있는 내용도 기다려집니다.”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지난 번 정기구독자 대열에서 탈락되었다고 위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복 받으실 거예요.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가난한 제게 딱 1년 동안만 본지를 보내줄 수 없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치밀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독자로서의 품위와 교양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하세요. ^^”

본지는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당첨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찾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www.sfac.or.kr/munhwaplusseoul

편집
후기

블랙리스트 이후 요즘만큼 문화예술계가 뉴스에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더라. 딸 가진 아빠로서 한마디... 에라이 별래만도 못한 x.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봄이 올가요.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다 때가 있다

윤선희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주요
배포처

새로운 봄이 오면 더 아름답게 피어날 대표님의 자랑들과 함께 ‘꽃보다 문화’ 신입사원 멤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처럼, 아름다운 마음가짐

지금처럼, 변치 않고 한결같은

‘꽃보다 청춘’들은 이제 ‘꽃보다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디어팀 임승연, 지역문화팀 신소정, 축제팀 박태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